

〈운영전〉 작가 고증

박희병*

- I. 머리말
- II. 성로(成輅)의 생애
- III. 성로를 작가로 보는 근거
- IV. 성로의 <운영전> 창작 동기
- V. <운영전>의 창작 시기
- VI. 맺음말

<국문초록>

<운영전>은 한국고전소설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자세한 고증을 통해 이 작품의 작자가 성로(成輅, 1550~1615)임을 밝혔다. 성로는 『석전유고』(石田遺稿)를 남겼는데, 이 논문은 이 저술과 <운영전>과 성로 동시대의 문인들이 남긴 기록, 이 3자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운영전>의 작자가 성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성로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의 후손이다. 성로가 <운영전>의 작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이 작품에 하필 성삼문이 등장하는 이유가 비로소 해명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평대군이 그리도 긍정적으로 그려진 이유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운영전>, 『석전유고』, 성로, 안평대군, 성삼문, 전기소설

1. 머리말

<운영전>은 17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고전소설의 명편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그 주제의식이나 미학적 성취가 조선 초의 『금오신화』 및 조선 후기의 『춘향전』과 동렬에서 논할 수 있을 만큼 걸출하다. 이 점에서 조선 후기 소설사는 <운영전>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영전> 이전과 <운영전> 이후의 한국소설사는 너무도 다르다.

<운영전>은 이처럼 중요한 작품인 만큼 그간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작품의 작자를 밝힌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¹⁾ 어떤 문헌에도 <운영전>의 작자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래서 <운영전>의 작자는 지금까지 줄곧 ‘미상’으로 처리되어 왔다.

<운영전>은 서사도 빼어나지만 작중인물이 읊조린 시 역시 빼어나다. 이 정도 수준의 시문을 구사하려면 당대의 1급 작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서사된 내용으로 볼 때 시골 학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며 경성의 우수한 문인이 쓴 것이 분명하다. 17세기 초는 18세기나 19세기와는 달라 중인층 문인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 이리 본다면 이 작품의 작자는 적어도 사대부 출신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소설사가 기억하는 17세기 전기의 소설 작자로는 허균(許筠)과 조위한(趙緯韓)을 꼽을 수 있다. 이 둘 중의 누군가가 익명으로 이 작품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문체나 미적 지향으로 볼 때 허균이나 조위한이 쓴 것은 아니다. 한편 허균이나 조위한보다 조금 일찍 한문 소설을 쓴 문인이 있으니 권필(權鵬)이 바로 그다. 권필은 16세기 말, 정확히 1593년 음력 5월에 <주생전>(周生傳)을 창작했다. <운영전>은 그 문체나 미적 지향으로 볼 때 권필의 작품도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권필, 허균, 조위한 세 사람이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이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전기의 소설사는 절친한 친구 사이인 이 세 사람이

1) 북한에서 출간된 문학사에서는 <운영전>의 작자를 ‘유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영은 <운영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유영은 가상의 인물이지 실제 인물은 아니다. 그러니 이 인물을 <운영전>의 작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환국은 『한문소설사 서술의 제 문제』(『한국한문학회연구』 제64집, 한국한문학회, 2016)에서 허균을 <운영전>의 작자로 추정했지만, <운영전>의 필치나 지향은 허균의 것과 거리가 있다.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세 사람은 틀에 박힌 삶을 살지 않았고, 풍류를 즐겼으며,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운영전>은 그 작품적 성취로 볼 때 <주생전>을 지은 권필,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을 지은 허균, <최척전>(崔陟傳)을 지은 조위환에 필적하는 문한(文翰)과 정념(情念)을 구비한 문인이 아니고서는 짓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사실은, <운영전>의 서사 내용으로 보아 그 작자는 부귀하고 현달한 사대부가 아니라 가난하고 불우한 사대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전기소설의 창작 전통이나 미적 원리를 고려할 때 <운영전>과 같은 ‘비극적 서사’를 축조할 수 있는 문인은 그 스스로 비극적 존재 여건에 있는 사람이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꼭 희박하다. 우리는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쓴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나 <심생전>(沈生傳)을 쓴 이옥에게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정통한문학의 장르들인 시나 산문과 달리 소설 창작에는 일종의 ‘전염성’ 같은 게 있다. 특히 비슷한 기질을 지닌 우인(友人)들 간에 이 전염성은 위력을 발휘한다. 문학사의 예를 들자면 18세기 말의 김려(金鑣)와 김조순(金祖淳), 김려와 이옥(李銍)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 17세기 초에 창작된 <운영전>은 이 시기의 주요한 소설 작자라고 할 권필이나 허균이나 조위환 주변의 문인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바, 이런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운영전>은 세 사람의 작품 중 특히 <주생전>과 통하는 점이 많다. 서사의 중간중간에 삽입시가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든가 남녀 주인공이 보여주는 욕망에 대한 적극적 추구가 현실로부터 소외된 작자의 불우한 처지를 질게 드러내고 있다든가 하는 점이 그러하다. 무릇 시나 사(詞)가 많이 구사되고 있는 전기소설은 작자의 시사(詩詞) 창작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설사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사 창작능력이 빼어나 자연히 그 능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터이다.

주생전과 <운영전>은 전혀 다른 지향을 보여준다. 그렇기는 하나 삽입시가가 많다는 점이나 남녀의 파란이 많은 사랑을 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주생전>과 <운

영전> 사이에는 혹 소설 창작의 전염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만일 이런 추론이 타당하다면 <운영전>의 작자는 권필의 교우 관계 안에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권필은 <사우록>(師友錄)을 남겨 놓고 있다.²⁾ 이 글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은 홍지성(洪至誠), 조위한(趙緯韓), 조찬한(趙纘韓), 성로(成輅), 임환(林權), 임훤(林愴) 여섯 명이다. 홍지성은 방외인 홍유손(洪裕孫)의 아들인데 정유재란 때 화를 입어 죽었다. 조찬한은 조위한의 동생인데 1605년 문과에 급제했다. 임계(林悌)의 넷째 동생 임환은 나주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는데,³⁾ 『선조실록』의 선조 36년(1603) 1월 19일 기사에 “前縣監林權, 世居羅州”라고 한 것으로 보아 1601·1602년 무렵 지방관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훤은 임계의 둘째 동생이다. 여섯 명 가운데 홍지성과 조위한을 제외하면 네 명으로 압축된다. 네 명 가운데 <운영전>을 창작할 만한 요건을 갖춘 인물, 즉 경성에 살았고 곤궁하고 불우했으며 틀에 얽매이지 않은 방달한 삶을 산 인물로는 성로가 주목된다. <사우록>에는 성로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성로는 자가 중임(重任)이다. 경오년(1570)에 진사가 되었으며 음관(蔭官)에 제수된 적이 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평소 정송강(鄭松江: 정철-인용자)을 존경해 스승으로 삼았다. 일찍 상처(喪妻)했지만 다시 혼인하지 않고 30여년을 혼자 살았다. 집이 가난했으나 술을 좋아했다. 자잘한 예법에 얽매이지 않았으나 친품이 높고 맑아 사람들이 자신은 그에 미칠 수 없다고 여겼다.⁴⁾

간단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순수하거나 범용한 인물이 아님을 간취해 낼 수 있다. <운영전> 정도의 소설을 쓰려면 비단 시문의 창작 능력이 당대 경성의 1급 문인이어야 할 뿐만은 아니다. 그 존재 여건이 시대와의 극심한 불화 속에 있어야 하고, 부귀공명 같은 세속적 가치에는 초연

2) <사우록>은 권필의 문집 『石洲集』에 실려 있는데 그 題下에 “起草而未及終篇”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미완성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 권필과 아주 가까웠던 허균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은 허균이 역모의 죄명으로 처형되었기에 문집을 편찬할 때 빼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未及終篇”이라는 제하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권필의 아주 절친한 벗들은 이 <사우록>에 거의 기록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3) 『선조실록』의 선조 31년(1598) 8월 5일 기사 참조.

4) “成輅, 字重任, 庚午進士, 嘗爲蔭官, 不屑就. 平生尊鄭松江爲師. 早喪妻, 不再娶, 獨居三十餘年. 家貧嗜酒, 不拘檢束, 而天品高朗, 人自不可及.”

하나 억압된 욕구와 자유분방한 정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성로는 일단 이런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성로가 과연 <운영전>의 작자일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논증해 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했지만 <운영전>의 작자에 대해 언급한 고전 문헌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작자를 고증하는 일은 작품을 요리조리 잘 살펴봄으로써 작품에 묻어 있는 작자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작품 속에는 의외로 작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숨겨져 있다. 즉 현재로서는 작자에 대한 최대의 정보가 작품 속에 있는 것이다. 작자의 논증 과정에서 설사 성로가 작자일 수 없다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도출된다 할지라도 그 역시 전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논증 과정을 통해 <운영전>의 작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II. 성로(成輅)의 생애

성로는 명종 5년인 1550년에 태어나 광해군 7년인 1615년 몰했다. 자는 중임(重任)이고, 호는 석전(石田)·잠암(潛巖)·삼일당(三一堂)·평량자(平涼子)이다. 본관은 창녕이다. 파조(派祖)인 6대조 회곡(檜谷) 성석용(成石溶)은 보문각 대제학, 5대조 성개(成概)는 경기도관찰출척사(京畿都觀察黜陟使), 고조 성희(成熹)는 승문원 교리, 조부 성운(成雲)은 병조판서, 부친 성영국(成永國)은 통례원 인의(引儀)를 각각 지냈으니, 경화 세족이라고 이를 만하다. 성희의 종형이 성승(成勝)이고, 성승의 아들이 곧 성삼문(成三問)이다. 성삼문은 성로의 삼종조이니 촌수로 치면 팔촌간이다. 성승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성삼문과 함께 처형되었으며, 성희도 이 일로 여러 차례 국문을 받은 후 가산이 적몰되고 김해에 위리안치되었다. 성희의 맏아들 성담수(成聃壽)는 생육신의 한 사람이고, 셋째아들 성담명(成聃命)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생원시에 합격한 후 숨어 덕을 닦고 평생 벼슬하지 않았다. 성로의 증조인 성담명이 처사적 삶을 산 것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성로의 집안은 절의를 고수한 점이 인상적이다. 다만 조부 성운이 기묘사화 때 남곤의 당여(黨與)였던 점이 집안의 한 점 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대의 위광이 가려

지지는 않는다.⁵⁾ 성로가 송강 정철을 스승으로 각별히 섬기며 평생 지조를 지킨 데에는 이런 집안 내력이 작용하고 있을지 모른다. 성로의 삶의 궤적은 특히 처사형 인물인 증조 성담명의 그것과 통하는 데가 있다.

성로는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죽기 2년 전에 자신의 글들을 거의 다 없애 버렸기에 생애를 재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다행히 1652년 영의정을 지낸 이경석(李景奭)이 찬(撰)한 행장이 전하기에,⁶⁾ 주로 이에 의거해 그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성로는 약관 때 정철의 문하에서 수업했으며 선조 3년인 1570년(21세) 진사시에 합격해 성균관에서 공부했다. 정철의 문하에서 수업한 것은 1569년(20세) 무렵부터로 추정된다. 정철은 이 해 홍문관 수찬, 교리, 지평을 역임했으며 이듬해 4월 부친상을 당해 경기도 고양군 신원에서 2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성로의 선영 역시 고양에 있었으므로,⁷⁾ 성로는 정철이 시묘살이를 할 때 고양에 자주 머물며 정철을 섬기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성로는 진사시에 합격한 후 벼슬에 뜻이 없어 과거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으며, 음식으로 사옹원 참봉, 제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뒤에 정철이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그의 문도로서 더욱 세상에 뜻이 없어 술에 의탁해 방외인적 삶을 살았다. 패랭이를 쓰고 다니며 방달하게 살아간 그를 당시 사람들은 ‘광객(狂客)’으로 지목했다.⁸⁾

성로는 13세 때 부친을 잃었는데 임진왜란 때 모친을 모시고 배편으로 강화도에서 호남으로 내려가 6년을 지냈다.⁹⁾ 이에 대해서는 좀 따져 봐야할 점이 없지 않다. <성석전선생행장>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이상 성로의 가계에 대해서는 창녕 성씨 檜谷公派 족보와 『昌山世德錄』(창녕성씨문숙공파 세보편찬위원회, 1982) 참조. 창녕 성씨 문숙공파는 회곡공파를 이른다. 派祖인 성석용의 호가 ‘회곡’이고 시호가 ‘문숙공’이기에 그리 불렀다.

6) <成石田先生行狀>이다. 『石田遺稿(하)』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7) 성석용·성계·성희의 묘는 파주에 있으나, 성담명·성운·성영국의 묘는 고양에 있다. 성로의 묘 역시 고양에 있다.

8) 李廷龜 <石田軼詞>(『석전유고(하)』 所收) 10수 중 제1수의 “白髮平涼子, 湖邊一老翁. 人皆謂狂客, 吾獨愛仙風”이라는 말 참조. 성로 스스로도 ‘광객’으로 자인했다. 성로의 다음 시가 참조된다: “白髮平涼子, 生涯爛醉中.”(<自嘲>, 『석전유고(상)』, 1b); “西湖狂客能拳舞, 置酒鳴琴坐野堂.”(<送別全僉使伯玉赴北>, 『석전유고(상)』, 12a) 이하 『석전유고』는 『석』으로 약칭함.

9) <分得今字>, 『석(상)』.

임진왜란을 만나 몸소 어머니를 업고 피난하여 선편(船便)을 얻어 강도(江都)에서 호남의 바다 모퉁이로 갔다.¹⁰⁾

이 인용문 중의 “몸소 어머니를 업고 피난하여”라는 구절과 “선편(船便)을 얻어 강도(江都)에서”라는 구절은 의미상 어떻게 연결될까? 강도, 즉 강화도에 살던 중 임란을 만나 아픈 어머니를 업고 배가 있는 곳으로 가 호남으로 내려갔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살던 중 임란을 만나 아픈 어머니를 업고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선편으로 호남으로 내려갔다는 뜻일까? 선행 연구에서는 전자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이전부터 성로가 강화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했다.¹¹⁾ 그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시다.

강성(江城)에서 객 되어 네 번 봄을 보나니
시름 자아내는 방초(芳草)가 비 속에 새롭네.
산재(山齋)에 술 익고 아무 일 없으니
나는 이 세상 부귀한 사람.
作客江城四見春, 喚愁芳草雨中新.
山齋酒熟身無事, 我是人間富貴人.

<강도춘흥>(江都春興)이라는 시다. ‘강도’는 말할 것도 없이 강화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시는 임란 전에 지은 시가 아니라 임란 때 호남으로 피난갔다가 1597년 강화도로 다시 온 후에 지은 시다. 성로는 호남에 6년간 피난해 있다가 1597년 8월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다시 강화도로 피난했다— 이 점은 뒤에 논한다. ‘네 번 봄을 봤다’고 했으니 1601년 봄에 이 시를 지은 게 된다.

요컨대 성로는 임란 전에 강화도에 거주한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왜란이 터지자 강화도로 피난했는데, 강화도 역시 안전한 곳이 못되자 다시 배를 구해 호남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로는 임란 전에는 어

10) “逢亂, 親負以避, 得舡便, 自江都轉往湖南海隅.”

11) 이종목, 『성로의 삶과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제8권, 한국한시학회, 2003), 8~9면; 김창호, 『성로 시세계의 연구』(『동방한문학』 제30호, 동방한문학회, 2006), 265면. 성로에 대한 연구의 기틀은 이종목이 처음 마련했다. 김창호의 논문은 이종목의 연구를 답습하고 있는 게 많아 보인다. 이 두 논문 외에는 연구가 없다.

디에 살았을까? 이와 관련해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기고 있다.

석전은 평시(平時) 인왕산 아래의 집에서 두문불출했으며 벼슬을 제수해도 나가 지 않았다. 임진왜란 후에는 양화도(楊花渡) 강가에 우거(寓居)했는데 사위 조영(趙嶸)과 서로 의지해 살았다.¹²⁾

인용문 중 ‘평시’는 평상시, 평소라는 뜻도 되지만 평화로운 때라는 뜻도 된다. 임진왜란과 대비해 이 말을 쓴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서는 평화로운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전(戰前)에는 인왕산 아래에 살았고 전후(戰後)에는 양화도에 살았다는 말이다. 정홍명은 성로의 스승 정철의 아들인데다 성로와 교유가 있었으니,¹³⁾ 그의 이 진술은 일단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성로는 인왕산 아래에 살 때 임란을 만나 강화도로 피난갔다가 거기서 다시 호남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당시 한양의 사인(士人)들 가운데 난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고, 성로는 강화도에서 다시 호남으로 갔다고 했는데, 호남의 어디로 간 걸까? 종래에는 전남 영광으로 보거나 전북의 고군산도로 보았는데, 실은 지금의 군산 내항에 해당하는 군산포(群山浦)로 여겨진다.¹⁴⁾ 군산포는 <성석전선생행장>의 ‘바다 모퉁이’[海隅]라는 말과 부합한다. 섬을 바다 모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군산에 온 이듬해 성로의 사위 조영(1572~1606)은 경상도 성주에서 가족을 이끌고 군산으로 피난온 김주(金軾, 1564~1636)라는 선비를 만나 막역지

12) “石田平時杜門仁王山下，除官不就。亂後寓居楊花江上，與其女婿趙嶸相依爲命。”(<漫述>, 『崎庵集』續錄 권12)

13) <鄭子羽·子容持酒來，口占>(『석(상)』, 22b)은 정철의 셋째아들인 鄭振溟(자 子羽)과 넷째 아들인 정홍명(자 子容)과 술자리를 함께 하며 지은 시이고, <偶得近體寄鄭子容求和>(『석(하)』, 4b)는 정진명에게 보내 화답을 구한 시이다.

14) 이종목, 앞의 논문에서는 영광으로 보았고, 김상엽, 『조영의 <군산이우도>』(『미술사연구』 제6집, 미술사연구회, 1992)에서는 고군산도로 보았다. 일찍이 許穆이 “當兵革之世，浮海避亂於靜州之君山”(<漢陽趙公節婦成氏雙墓銘>, 『記言』 별집 권25)이라 하여 성로의 피난처를 靜州, 즉 영광으로 보았으나 이는 착오이다. 성로의 호남 피난처가 군산포임은 박영철, 『<군산이우도>와 군산도』(『역사문화연구』 제6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7)에서 자세히 고증되었다.

우가 된다. 그리하여 조영의 <군산이우도>(群山二友圖)¹⁵⁾가 그려지게 된다. 김주는 이 그림에 다음과 같은 서(序)를 붙였다.

내가 사안(士安)과 군산에서 사귄 것은 계사년(1593) 봄이다. 영남과 한양은 상거(相距)가 천리인데¹⁶⁾ 처음 만나 하룻밤에 친해져 난리의 고통 속에서 5년을 함께 지낸바 평생의 벗으로 의기투합했다. … 만력(萬曆) 병신(1596) 늦가을 파징(波澄) 김주 서(序)¹⁷⁾

성로도 김주와 가깝게 지냈다.¹⁸⁾ 성로는 군산에 6년간 머물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선편(船便)으로 강화도로 온다.¹⁹⁾ 성로가 강화도로 올 때 김주의 가족도 동행했다.²⁰⁾ 지금 전하는 <군산이우도>에는 권필의 제시(題詩)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시는 김주가 강화도에 있을 때 권필에게 청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둘은 이때 처음 만나 교류했다.²¹⁾

강화도로 온 이듬해에 성로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다. 난중이라 부친의 묘가 있는 고양 선영에 모시지 못하고 강화도에 산소를 썼다. 『석전유고』 중의 ‘선묘(先墓)’나 ‘선릉(先壟)’은 모두 모친의 산소를 이른다.²²⁾

15) 이 그림은 현재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군산이우’는 군산의 두 벗이라는 뜻이다.

16) “영남과 한양은 相距가 천리인데”(원문은 ‘嶺漢千里’)라는 말을 통해서도 성로가 한양에서 살던 중 피난온 것임을 알 수 있다. 1592년 당시 성로는 이미 喪妻하여 독거하고 있었으며, 사위 조영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권필의 시 <題群山二友圖>〔‘석주집’ 별집 권1)에서도 “漢陽趙夫子, 眼如九秋鷹. 南州金秀才, 心貯玉壺冰. 二君相去千餘里, 二君氣味乃相似”라 하여, 친여 리나 떨어진 한양과 남주(성주)에서 각각 피난온 조영과 김주가 벗이 되었음을 읊고 있다.

17) “余與士安友於羣山在癸巳春也. 嶺漢千里, 傾蓋一夕, 亂離瘼矣, 肩隨五載, 契托百年, 意氣合也. … 萬曆丙申季秋, 波澄金輅序.” 이 序는 김주의 문집인 『雲巖先生集』(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권2에도 실려 있다.

18) “趙之聘翁成石田輅, 與君[김주-인용자]一見如舊, 相厚如骨肉焉. 亂中遭二親喪, 成與趙極力措置衣食棺槨, 備盡無憾.”(<行蹟>, 『운암선생문집』 권3의 부록)

19) “一身千里是, 飄泊六年今.”(<分得今字>, 『석(상)』, 6b) 이 시 題下에 “丁酉年南中作”이라 적혀 있다.

20) “丁酉, 寇充斥湖海, 不可仍留, 與成趙二公, 同乘海舶, 轉入江華.”(<행적>, 『운암선생문집』 권3의 부록)

21) 권필은 김주가 1609년 강화도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송별시를 써 주었는데 그 시의 서문에서 “余識金君志遠[지원은 김주의 자-인용자]近十年, 始見於處士成氏[성로-인용자]之居”라고 했으며, 시 본문에서 “相逢風塵中, 一笑許知己. 往還八九載, 浩蕩江湖醉”라 했다(<送金進士南歸星州>, 『석주집』 권1).

22) <有感>〔‘석(하)』, 10a)이라는 시에 “四年投跡此江都, 先壟關心病未蘇”라 하여 ‘선릉’이라는

1602년 가을 성로는 사위 조영을 서호(西湖)로 보내 양화도 부근의 산 아래에 초옥(草屋)을 조성한다. 성로는 <임인년 가을 먼저 사안을 서호로 보내 결려(結廬)하다>라는 다음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념하고 있다.

천옹(天翁)이 뜻을 내어 집을 처서는
 지주(砥柱) 앞에 터 정하니 기이한 일이네.
 호전(湖田)의 구업(舊業)을 떠나야 하고
 신천(新阡)에 서리가 내리니 마음이 슬프네.
 평생 한가한 날 없음을 스스로 서글퍼하다가
 부생(浮生)이 잠시라 도리어 웃네.
 삼일당(三一堂)이 완공되면 더욱 좋으리
 모년(暮年)의 유흥(幽興)이 여기와 딱 맞을 테니.
 天翁作意鑽靈龜, 砥柱當前卜地奇.
 舊業湖田須決去, 新阡霜露可堪悲.
 自憐百歲無閑日, 還笑浮生是暫時.
 三一堂成應更好, 暮年幽興此相宜.²³⁾

‘천옹(天翁)’은 성로 자신을 가리킨다. 성로는 조영을 자식처럼 여겼고 조영 역시 성로를 아버지처럼 받들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호전(湖田)’의 구업(舊業)은 강화도의 전장(田莊)을 이른다. ‘신천(新阡)’은 ‘새 무덤’이라는 뜻이니, 모친의 산소를 말한다. ‘삼일당(三一堂)’은 서호에 새로 짓는 집 당호다.

이 시를 통해 성로가 서호에 살기 시작한 것이 빠르면 1602년 겨울, 늦어도 1603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성로는 1615년 죽을 때까지 서호의 이 집에 살았다.

1606년 조영이 35세로 사망한다.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외손이고 울곡(栗谷) 이이(李珣)의 생질인 조영은 재주가 있었으나 평생 벼슬하지 않았다. 성로처럼 술을 몹시 좋아하여 성로는 그를 술친구처럼 여겼다.

말이 보이고, <壬寅秋, 先送士安于西湖結廬>(『석(하)』, 11a)라는 시의 題下에 “先墓在江華”라 하여 ‘선묘’라는 말이 보인다. 종래에는 문집의 이 말들을 선영으로 오해해, 성로가 강화도에 우거했던 게 선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3) <壬寅秋, 先送士安于西湖結廬>, 『석(하)』, 11a.

봉화 담실에 살았던 석천(石泉) 권래(權來, 1562~1617)의 시청비(侍廳婢) 설죽(雪竹)이 성로를 좇아 서호로 온 것도 이 무렵이라고 생각된다. 설죽은 160여수의 한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는 서호에서 읊은 시들이 적지 않다.²⁴⁾ 다음 시는 성로가 죽은 뒤에 지은 시다.

10년을 한가로이 석전을 짝해 노닐었나니
양화강가에 취하여 얼마나 머물렀던고.
그 사람 떠난 후 오늘 홀로 찾으니
옛 모래톱 물가에 흰 마름꽃 향기 가득하네.
十年閑伴石田遊, 楊子江頭醉幾留。
今日獨尋人去後, 白蘋香滿舊汀洲.²⁵⁾

<서호에서 성석전을 생각하며>(西湖憶成石田)라는 시다. 이 시를 통해 설죽이 성로와 10년간 서호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죽은 성로가 죽자 서호를 떠난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1606년경부터 서호에서 생활하지 않았나 한다.

성로는 36세 때인 1585년 아내를 잃었다.²⁶⁾ 이후 다시 장가들지 않았고, 첩도 얻지 않았으며, “독처이종”(獨處以終)한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종래의 연구에서는 설죽을 성로의 첩으로 보았다.²⁸⁾ 하지만 성로 집안의 가장(家狀)을 근거로 작성된 <성석전선생행장>에서는 성로가 첩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어느 주장이 옳을까? 두 사람이 남긴 시에서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설죽이 지은 시들이다.

24) 봉화 담실의 冲齋 중가에 전하는 權尙遠의 『白雲子詩稿』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雪竹詩稿』의 <奉和成石田>(1a), <西湖憶成石田>(4b), <獨在楊江秋日偶吟>(5a), <寄三一堂>(5b), <次石田韻>(7b), <陪石田分得斜字>(7b), <船游>(7b), <登巒嶺>(7b), <獨宿西湖亭舍>(8a), <次成進士石田韻>(8a), <次石田韻>(8a), <西湖泛舟次七松韻>(8b) 등 참조.

25) <西湖憶成石田>, 『雪竹詩稿』, 4b.

26) “李氏(…), 先公三十年而歿.”(<성석전선생행장>)

27) “不復娶, 亦不畜妾, 獨處以終.”(위의 글)

28) 이원길, 『조선조기녀 시인 설죽』, 『한문학보』 제31집, 2014, 13면.

(가)

삼일당의 선비를 찾아가고자
 근심스런 눈썹 억지로 펴고 소루(小樓)를 내려가네.
 문을 나서 가려다가 되려 자신을 돌아보니
 알과라 초췌해 남에게 근심을 보일 줄.
 爲尋三一堂中士, 強拂愁眉下小樓
 出戶欲行還自省, 也知憔悴見人愁.²⁹⁾

(나)

시내에 붉은 꽃 가득하고 해는 누엣누엣한데
 봄바람이 늙은 벽도화에 부네.
 유인(遊人)과 고대(高臺)에서 함께 취하나니
 잠시 단란히 지내는지라 원망이 많네.
 紅滿苔溪日欲斜, 東風吹老碧桃花
 遊人共醉高臺上, 暫得團圓足怨嗟.³⁰⁾

(다)

잠령(蠶嶺)은 경치의 주인이고
 석전은 시의 주인이네.
 서로 만나 취하는 줄도 모르거늘
 양화 나무에 달이 지네.
 蠶嶺煙霞主, 石田詩主人
 相逢不覺醉, 月墜楊花津.³¹⁾

(가)는 <삼일당에 부치다>(寄三一堂)라는 시다. 이 시를 통해 설죽이 성로와 함께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석전을 모시고 ‘사(斜)자를 운으로 시를 짓다>(陪石田分得斜字)라는 시다. 이 시 중의 ‘유인(遊人)’은 ‘유자(遊子)’, ‘유객(遊客)’과 같은 말인데 나그네를 뜻한다. 성로가 이곳저곳 술자리에 가 노닐었기에 이 말을 썼을 수 있다. ‘고대(高臺)’는 삼일당 뒤에 있는 작은 산을 말하는데, 풍광이 썩 좋았다고 한다.³²⁾ 이 시의 제4구 “잠시 단란히

29) <寄三一堂>, 『설죽시고』, 5b.

30) <陪石田分得斜字>, 위의 책, 7b.

31) <奉和成石田>, 위의 책, 1a.

지내는지라 원망이 많네”라는 말을 통해 함께 있는 날이 꼭 많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의 ‘단원(團圓)’이라는 단어는 가족이 모여 단란하게 지내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특히 부부간에 많이 쓴다. 이 단어를 통해 두 사람이 각별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잠시 단란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기에 원망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주종관계는 아니며 아주 특별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다)는 <받들어 성석전에게 화답하다>(奉和成石田)라는 시이다. ‘잠령’은 잠두봉(蠶頭峯)을 말한다. 양화도 동쪽 한강가에 돌출된 삼십 미터쯤 되는 봉우리이다. 이 시를 통해 두 사람이 술을 함께 마시며 시를 수창한 시우(詩友)임을 알 수 있다. 제3구 원문의 ‘상봉(相逢)’이라는 말을 통해 두 사람이 동거하는 사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성로는 설죽을 어찌 읊었던가? 다음 시들이 참조된다.

(가1)

처마의 비 차가운 창호(窓戶)에 드는데
외론 등불 그림자 침상에 비치네.
미인은 깊은 밤 앉아
술을 마주해 이별의 근심을 말하네.
簷雨入寒戶, 孤燈影上床頭。
美人深夜坐, 對酒說離愁。

(가2)

서호에서 떠도니
누가 이 머리 흰 늙은이를 알리.
6년 가무(歌舞)의 즐거움
오늘밤 죄다 근심이 되었네.
浪跡西湖上, 誰知此白頭。
六年歌舞樂, 今夜摠成愁。³³⁾

32) 권필은 <數次成進士見示韻>(『석주집』 별집 권1)에서 이리 읊고 있다: “湖海成夫子, 平生百尺臺。可憐經世志, 白頭但含杯。” 이 시의 제2구에 다음과 같은 自註가 달려 있다: “君卜居楊花浦上, 每自誇屋後小臺以爲絕勝之地故云。” 『석전유고』에 보면 성로가 집 뒤의 이 소대에 올라가 술을 마시거나 회포를 풀었다는 말이 많이 보인다.

33) <夜懷二首>, 『석(상)』, 3a~3b.

(나)

서리가 막 내린 고대(高臺)의 가을빛에
 흥취 일어 술을 찾고 생선과 채소 곁들였네.
 미인은 손에 단풍잎 쥐고
 웃으며 산옹(山翁)의 취한 얼굴 같다 하네.
 臺上秋光霜落初, 興來呼酒間魚蔬
 美人手把丹楓葉, 笑道山翁醉面如.³⁴⁾

(가)는 <밤의 회포 2수>(夜懷二首)라는 시다. 이 시는 설죽이 서호에 온 지 6년째 되던 해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죽은 떠나온 고향의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주 수심에 잠겼다. 『설죽시고』(雪竹詩稿)에는 서호에 있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시들이 적지 않다. (가1)의 “이별의 근심”은 바로 이 향수(鄉愁)를 의미한다. 설죽은 시를 잘 지을 뿐 아니라 가야금도 잘 타고 가무에도 능했다. 그래서 (가2)에서 “6년 가무의 즐거움” 운운한 것이다. 비오는 이날 밤 설죽은 성로와 밤늦게 술을 마시다 향수를 토로했던 듯하다. 그래서 성로는 같이 서글퍼하며 이 시를 지어 설죽을 위로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미인>이라는 시다. 결구(結句)의 ‘산옹’은 성로를 가리킨다. 삼일당은 양화도 강가의 작은 산 아래 있었기에 성로는 종종 자신을 ‘산옹’, 자신의 집을 ‘산재(山齋)’라고 했다. (가)든 (나)든 두 사람의 관계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적어도 성로가 권래처럼 설죽을 시청비(侍廳婢)로 대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주목되는 것은 두 시 모두 설죽을 ‘미인’으로 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릇 시가에서 ‘미인’이라는 단어는 함의가 꽤 다양하다. 벗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주군을 가리킬 수도 있다. 성로의 스승 정철이 지은 <사미인곡>의 ‘미인’은 주군을 뜻한다.

미인이라는 말은 이처럼 다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를 ‘미인’이라고 호칭하지는 않는다. 그 연장선상에서 첩도 미인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미인이라는 단어는 처첩과는 달리 일정한 거리가 있는 대상에게 쓰는

34) <美人>, 위의 책, 16b.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석전유고』를 보면 성로는 주로 기녀를 일컬을 때 ‘미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몇 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미인이 아름다운 배에 오르자 / 붉게 화장한 얼굴 녹수에 비치네.
(美人上彩舟, 紅粧映綠水)³⁵⁾

(나)

미인은 협소(俠少)를 보자 / 아리따이 웃으며 주렴 걷고 나오네.
(美人見俠少, 嬌笑開簾出)³⁶⁾

(다)

미인이 친근히 앉아 시구를 재촉하며 / 먹 갈고 종이를 잡는데 작은 목소리
어여쁘네.
(美人狎坐催詩句, 磨墨持牋細語嬌)³⁷⁾

이 중 (다)는 소시적에 지은 시다. 이를 통해 성로가 일찍부터 ‘미인’이라는 단어를 기녀를 가리키는 말로 써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첩(妓妾)’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기생도 첩이 될 수 있다. 설죽은 혹 성로의 기첩이 아니었을까? ‘기첩’이든 ‘비첩(婢妾)’이든 첩이라고 하면 일단 남성이 여성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주거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충당해 줘야 한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첩’이라고 할 수 없다.³⁸⁾ 성로는 오래전에 상처해 독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설죽과 한집에 살지 않은 것을 보면 설죽을 첩으로 삼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설죽은 서호에서 가무를 팔며 창기(倡妓)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5) <閨女詞 十首>의 제1수, 『석(하)』, 17b.

36) <閨女詞 十首>의 제6수, 위의 책, 18a.

37) <暮春遊洗心臺二首>의 제1수, 『석(상)』, 8b.

38) 19세기 말에 창작된 소설인 <布衣文集>에서 남자 주인공 이생은 지인들이 따로 집 한 채를 구해 양과와 같이 살라고 권하자 “가난한 내 형편에 어찌 그럴 수 있겠소”라고 말한다. 지인들이 그러면 돈 200냥을 모아 줄 테니 집을 세 내어 양과와 같이 살 것을 권하자 “고향에 어린 아내가 있고 아직 자식을 두지 못했거늘 어찌 그 여자를 들이겠소”라고 말한다(정공보, 박희병·정길수 교감·역주, 『포의교집, 초옥 이야기』, 돌베개, 2019, 68면). 이에서 첩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거 공간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둘의 관계는 무엇으로 규정해야 옳을까? 연인 관계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³⁹⁾ 조선시대에 애정을 나누는 남녀의 관계가 처나 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3의 관계로 연인 관계가 있었다. 19세기 소설 <절화기담>이나 <포의교집>의 남녀 주인공 역시 바로 이 제3의 관계에 해당했다. 이 제3의 관계에서 여성은 처나 첩과 달리 소유나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연인과 정신적·문예적 교분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불안과 외로움의 감정에 더 시달리곤 했다. 설죽이 서호에서 쓴 시들에 외로움과 적적함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터이다.

성로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개관하는 자리이건만 설죽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에 지나치게 지면을 많이 쓴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운영전>의 작자 고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죽은 성로의 여종도 아니고 첩도 아니었다. 둘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설죽이 시재(詩才)가 있어 시로써 서로 정신적·문예적 교감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인 데 더 가깝다고 보인다. 성로는 설죽을 시우(詩友)이자 풍류의 반려로서 펴 인격적으로 대할 듯하다. 이 때문에 설죽은 성로 사후 호서와 한양을 떠돌면서도 성로와 함께 서호에서 지낸 때를 못내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성로는 권필과 아주 가까이 지냈다. 그런 권필이 1614년 풍자시를 써서 권문(權門)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국문을 받고 귀양가다가 동대문에서 급사했다. 이 일에 분만(憤懣)을 느끼고 상심한 성로는 그 동안 쓴 글들의 원고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성석전선생행장>에는 이리 적혀 있다.

공과 석주 권필은 특히 서로 좋아하였다. 석주가 시화(詩禍)로 죽자 공은 늘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원고를 불태운 것은 갑인년(1614)간이다. 이후로 문밖을 나서지 않았다.⁴⁰⁾

39) 조선시대에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情人’이라고 했다. ‘정인’이라는 말 대신 ‘애인’이나 ‘연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근대에 와서다.

40) “公與石洲權公特相好。石洲坐詩案死，公常悲痛涕泣，其焚藁在於甲寅年間，自此不復出戶。”

이경석의 『석전유고』 서문에 의하면, 성로가 저술한 글이 한 상자에 가득했는데 갑인년간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⁴¹⁾ 지금 전하는 유고는 산락(散落)되거나 전송(傳誦)되던 것을 외손 조성후(趙成後)가 수집한 것이다.

성로는 신음하지 않고 술에 취해 죽는 것이 늘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대로 광해군 7년인 1615년 3월 5일 술에 취하여 자던 중 죽었다. 향년 66세다.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10수의 만시를 써서 애도했고, 계곡(谿谷) 장유(張維)가 제문을 써서 곡했다. 다음은 이정귀가 쓴 만시의 한 수인데, 석전의 만년 삶이 잘 그려져 있다.

날마다 깨었다가 다시 취하고
때때로 울다가 또 노래 불렀지.
그대 뜻을 세상 사람들 어찌 알겠소?
아무리 굶주려도 구차한 도움 받지 않았지.
천지가 은거를 용납하여서
늙어서 강호에 집 마련했네.
도연명의 시집
길게 읊조리는 소리 이젠 들을 수 없네.
日日醒仍醉, 時時哭又歌.
世無知爾意, 饑不受人嗟.
天地容高臥, 江湖得晚家.
一編陶靖節, 那復聽長哦.⁴²⁾

III. 성로를 작자로 보는 근거

1. 수성궁 부근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점

<운영전>은 다음에서 보듯 수성궁의 지리적 형세에 대한 서술에서부터 시작한다.

41) “所著述, 滿一簞, 甲寅年間, 盡焚之.”(『석전유고』 서문)

42) <挽成石田>의 제3수, 『月沙集』 권17. 이 만시는 『석전유고(하)』의 부록에도 <石田輓詞>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으로, 한양성 서쪽의 인왕산 아래에 있다. 이곳은 산천이 수려하며,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을 하고 있다. 그 남쪽에 사직이 있고 동쪽에 경복궁이 있다. 인왕산의 한 줄기가 굽이굽이 휘돌아 내려오다 수성궁 앞에 이르러 우뚝 일어선다. 비록 높고 험준하지는 않으나 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큰길에 늘어선 시장이며 성 가득 으리번쩍한 집들이 바둑판의 바둑돌 모양, 하늘의 별들 모양 펼쳐져 있어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고, 베틀에다 실을 가로세로로 짜 놓은 것처럼 구획이 뚜렷하였다. 동쪽으로는 아득히 궁궐이 바라보여 구름다리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고, 구름 안개가 쌓여 내는 비췌빛이 아침저녁으로 자태를 드러내니, 참으로 경치가 빼어난 곳이라 할 만하다. 당대의 술꾼들과 활쏘기 즐기는 이들, 노래하고 피리 부는 아이들, 시인이며 서화가들이 꽃 피는 봄날이건 단풍 지는 가을날이건 날마다 여기서 노닐며 자연을 노래하고 즐기다가 집에 가는 것도 있느다.⁴³⁾

그럼으로 치면 ‘부감시(俯瞰視)’에 해당하겠는데, 그 묘사가 아주 자세하다. 수성궁 주변의 경관에 대해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사실이나 문헌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한 묘사로 여겨지지 않는다. 수성궁에 한두 번 놀러 갔던 경험을 토대로 서술된 글 같지도 않다. 그냥 놀러왔다 간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부근에서 오래 살아 지세(地勢)와 인문적 상황을 손바닥 보듯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언명되어 있음으로써다. 이를테면 다음의 사실들이 그러하다.

(가) 수성궁 터는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을 하고 있다.

(나) 인왕산의 한 줄기가 굽이굽이 휘돌아 내려오다 수성궁 앞에 이르러 우뚝 일어선다.

(다) 비록 높고 험준하지는 않으나 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큰길에 늘어선 시장이며 성 가득 으리번쩍한 집들이 바둑판의 바둑돌 모양, 하늘의 별들 모양 펼쳐져 있어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고, 베틀에다 실을 가로세로로 짜 놓은 것처럼 구획이 뚜렷하다.

(라) 동쪽으로 궁궐이 바라보는데, 구름 안개가 쌓여 내는 비췌빛이 아침저녁으로 자태를 드러낸다.

43) 박희병·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돌베개, 2007), 29~30면. 이하 <운영전>의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한다.

(마) 당대의 술꾼들과 활쏘기 즐기는 이들, 노래하고 피리 부는 아이들, 시인이며 서화가들이 꽃 피는 봄날이건 단풍 지는 가을날이건 날마다 여기서 노닐며 자연을 노래하고 즐기다가 집에 가는 것도 있는다.

(가)와 (나)는 수성궁 부근에 오래 거하여 그 풍수지리를 경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발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다)에서 ‘산’은 인왕산을 가리킨다. 작자에게는 인왕산에 올라가 도성을 내려다본 경험이 있음이 분명하다. 조선시대 문인의 시문 중 인왕산에서 상춘(賞春)한 일을 적은 것은 허다하지만 인왕산에 올라가 한양 도성을 내려다 본 광경을 적은 글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로 본다면 작자는 꼭 유람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 과정’의 일부로 인왕산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작자의 집이 인왕산 기슭에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기 어렵다. (라)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어쩌다 수성궁 부근에서 바라본 경복궁을 묘사한 것이 아니며, ‘조석으로’, 즉 ‘일상적으로’ 바라봤던 경복궁의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리하려면 작자의 조망점(眺望點)이 지속적으로 인왕산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마)는 이런 정황을 늘 곁에서 접한 사람의 진술처럼 읽힌다.

이처럼 <운영전> 도입부의 분석에서 드러나듯 이 작품의 작자는 인왕산 기슭에 거주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성궁의 지세와 그 주변 경관을 이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운영전> 도입부의 서술은 작자의 실존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⁴⁴⁾

본고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성로는 임란이 일어난 1592년까지 인왕산 아래에 죽 살았다. 성로는 젊은 시절 이 집에 살면서 삼각산을 유람하기도 했다. 삼각산에 놀러가는 사위 조영에게 준 장편 오언고시 <갑진(甲辰) 4월 삼각산에 놀러가는 사안을 보내며>(甲辰四月, 送士安遊三角山)⁴⁵⁾에 의하면, 성로는 25세 때인 1574년 술과 지필(紙筆)을 갖추어 어느 왕손(王孫)과 조암(槽岩), 벽하동(碧霞洞), 무릉계곡(武陵溪谷), 석문(石門), 백운대, 노적봉 등

44) 다음은 성로가 ‘소시’에 지은 <暮春遊洗心臺二首>(『석(상)』, 8b~9a)라는 시다: “岩花落後綠陰交, 盡日臨風醉石橋。美人狎坐催詩句, 磨墨持牋細語嬌。” “醉拂層林下石臺, 暮雲殘照首重回。欲出洞門還倚樹, 晚風吹送落花來。” 세심대는 필운대와 함께 인왕산의 이름난 석대(石臺)다. 이 시를 통해 성로가 소시적부터 집 주변 인왕산의 승경에서 풍류를 즐기곤 했음을 알 수 있다.

45) 『석(하)』 15b.

을 구경했다. 성로는 이때 당시 삼각산에 있던 중흥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들을 탐방했을 터이다. <운영전>에서 김진사는 운영이 자결하자 그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삼각산에 있던 청량사라는 절에 불공을 드린다. 이런 설정에는 젊은 시절 성로의 삼각산 유람이 도움이 됐을 수 있다.

<운영전>의 실제 무대는 도성 안에 있던 수성궁이 아니다. 작품에서 안평대군은 창의문 밖에 새로 ‘비해당(匪懈堂)’이라는 정사(精舍)를 조성해 10명의 궁녀를 이곳에 거주하게 한다. 작중에서 ‘비해당’의 위치는 지금의 부암동으로 추정되니, 인왕산 북쪽 기슭에 해당한다.⁴⁶⁾ 부암동에서 상명대 쪽으로 좀 내려가면 탕춘대가 있고, 창의문 안으로 들어가 경복궁을 지나 왼쪽으로 접어들면 소격서가 있던 삼청동이 나온다. 작품에서 궁녀들은 추석날 빨래하며 술자리를 벌일 곳을 늘 해오던 대로 탕춘대로 할지 아니면 삼청동으로 할지를 두고 옥신각신한다. 삼청동과 탕춘대는 인왕산 좌우에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비해당’이 있다. 작자는 삼청동-‘비해당’-탕춘대로 이어지는 이 곳 지리에 밝은 사람임이 틀림없다.

46) 창의문 밖에 비해당을 조성했다는 <운영전>의 이 서술은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 비해당은 원래 도성 안 인왕산 기슭에 있던 안평대군 제택(第宅)의 당호(堂號)다. 이 당호는 부왕(父王)인 세종이 1442년 음력 6월 지어준 것으로(박팽년, 『匪懈堂記』, 『六先生遺稿』 권1 참조), 『시경』 『蒸民』의 “夙夜匪解(解는 ‘懈’와 통함-인용자), 以事一人”에서 따온 말이다. 세종은 1447년 음력 1월 13일 비해당에 이어(移御)하기도 했다(『세종실록』 세종 29년 1월 13일 병자 기사 중의 “移御安平大君踏第”라는 말 참조). 안평대군은 1451년(문종 2년)에 창의문 밖 부암동에 무계정사(武溪精舍)를 건립했는데, 이는 안평대군이 1447년 4월 무릉도원의 꿈을 꾀 뒤 안건으로 하여금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일과 연결된다. <운영전>에서 말한 도성 밖의 ‘비해당’은 실은 이 무계정사에 해당한다. 이 점은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수양대군은 1453년(단종 1년) 이른바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안평대군을 사사(賜私)한 뒤 그 제택인 비해당을 몰수해 문종 후궁의 거처로 삼았다. 그리고 그 명칭을 ‘수성궁(壽成宮)’이라고 하였다(『단종실록』 단종 2년 3월 13일 기사 중의 “文宗後宮所居, 稱壽成宮”이라는 말 참조). ‘壽成宮’이나 ‘寧壽宮’에서 보듯 후궁의 별궁 이름에는 ‘壽’자가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면 <운영전>의 모두(冒頭)에 “壽成宮即安平大君舊宅也”라고 한 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안평대군 생시에 그 제택을 ‘수성궁’이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성궁이 안평대군의 옛 집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운영전>의 작자는 도성안 안평대군의 집이 비해당이고, 수성궁은 안평대군 사후의 궁명(宮名)임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소설적 변형을 가한 것일까? 이 점은 분명히 알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①사실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착종이 이 작품의 문예적 성취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점, ②안평대군의 제택을 ‘수성궁’이라고 함으로써 안평대군은 실제보다 ‘훨씬 더 성대한’ 인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실제의 비해당과 <운영전>의 비해당을 구별해 후자는 홀파움표를 한 ‘비해당’으로 표기한다.

한편 앞의 인용문에 묘사된 한양 도성과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파괴되기 전의 모습이다. 다음은 이 인용문에 이어지는 대목이다.

청과(靑坡)에 사는 선비 유영은 이곳 경치가 아름답다는 말을 하도 들어 여기서 한번 노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옷이 남루하고 얼굴빛도 피죤피죤하여 놀러 온 길손들에게 비웃음당할 것이 뻔하기에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려다가 도 머뭇머뭇한 지 오래였다.

만력(萬曆) 신축년(1601) 춘삼월 기망(既望)에 유영이 막걸리 한 병을 사서는 아이종도 친구도 하나 없이 혼자 술병을 차고 궁궐 문을 들어서니 사람마다 모두 돌아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 유영은 창피하고 무안하여 후원으로 들어갔다.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서울의 궁궐이며 성 가득 화려한 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무너진 담장, 깨진 기와, 못 쓰게 된 우물, 무너진 계단에 초목이 무성하고 오직 동쪽에 걸쳐 몇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⁴⁷⁾

이에서 알 수 있듯 작자는 전쟁 이전 평화롭던 시절의 수성궁과 한양 도성의 모습을 작품의 서두에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전쟁으로 파괴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조적 서술에는 임란을 겪은 작자의 실존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성로는 인왕산 아래에 살다 임란을 만나 강화도로 피난갔다가 거기서 다시 군산으로 피난갔으며, 군산에서 6년간 머물다 정유재란 때 다시 강화도로 피난해 6년을 지냈으며, 1603년 무렵 양화도 부근에 정착했다. 성로는 1598년 12월 전쟁이 종식된 뒤 바로 도성 안 자신의 옛집을 찾았을 터이다. 그러므로 유영이 폐허가 된 수성궁을 처음 찾아가던 시점을 1601년 춘삼월로 설정한 것은 허구일 것이다. 아마도 작자는 서호 정착 이후, 소급된 시간 속에 자신의 존재 여건을 투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은 <운영전>의 창작 시기를 논하는 본고의 제5장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유영이 도성으로 들어오기를 꼭 망설이다가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로의 행적과 부합한다. 전하는 기록들에 의하면 성로는 서호에 정착한 후 도성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양반임에도 패랭이를 쓰고 다니며 술에 취해 기행(奇行)을 일삼아 사람들이 ‘광객’으로

47) 『사랑의 죽음』, 30~31면.

지목했다고 한다.

작중에서 유영의 모습이 께죄죄하고 입은 옷이 남루해 남들의 빈축을 샀다고 한 것, 아이중도 친구도 하나 없이 혼자 술병을 차고 도성으로 들어왔다고 한 것은, 취선(醉仙)으로 자임하며 방외인적 삶을 살았던 서호 시절 성로의 모습과 부합한다.

2. 작중에 성삼문이 등장한다는 점

<운영전>에는 성삼문이 등장한다. 성삼문은 서사의 기본선에서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중 있게 그려진다. 작품에서 성삼문이 언급되는 것은 다음에서 보듯 도합 네 번이다.

(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들이 모두 맹시단(盟詩壇)에 모였습니다. 그중 문장으로는 성삼문이 으뜸이요(…)48)

(나) 만당(晩唐)의 시와 비교해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겠으나, 근보(近보)성삼문의 자·인용자 이하의 사람들 중에는 너희보다 앞섰다고 할 자가 없겠구나.49)

(다) 잠시 후 성삼문이 도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주란 딴 시대에서 빌려 오지 않습니다. 고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60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로써 이름을 떨친 이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은 시는 무겁고 탁하나 아담하지 않고, 가볍고 맑으나 경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음률에 부합하지 않고 참된 마음을 잃고 말았으니, 저는 이들 모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게 지금 이 시들을 보니 품격이 맑고 참되며 생각이 고매하여 조금도 속세의 태깅이 없습니다. 이 시를 지은 이는 필시 깊은 궁궐에 살면서 속세 사람들과 접하지 않은 채 오직 옛 사람의 시만 읽고 밤낮으로 읊조리다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시의 뜻을 자세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맞으며 홀로 설위하구나’라는 구절에는 임을 그리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나무 홀로 푸르름을 간직했

48) 위의 책, 36면.

49) 위의 책, 42면.

어라'라는 구절에는 정절을 지키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 흩어지는데'라는 구절에는 정절을 지키기 어려운 태도가 보입니다. '초나라 임금 향하는 그옥한 마음'이라는 구절에는 대군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연잎에 이슬방울 남았네'그러'라는 구절과 '서쪽 산과 앞 시내에 있어'라는 구절은 천상의 신선이 아니고선 이처럼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격조에서는 높고 낮은 차이가 있으나, 교양과 기상으로 말하면 모든 시가 거의 같은 경지라 하겠습니다. 나리의 궁중에 열 사람의 신선이 살고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숨기지 말고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대군이 이 말에 내심 승복하면서도 겉으로는 수궁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근보더러 시를 잘 본다고 했던가? 나의 궁중에 어찌 이런 인물이 있을 리 있겠소? 착각이 참으로 심하기도 하구려.”⁵⁰⁾

(라) 이튿날 대군이 진사의 시 두 편을 거듭 읊조리더니 탄식하며 말씀하셨어. “의당 근보와 자웅을 다룰 것이로되 그 청아한 태깁은 성삼문보다 낫구나.”⁵¹⁾

(가)에서 ‘맹시단(盟詩壇)’은 안평대군이 ‘비해당’ 옆에 세운 단(壇)으로, 당대의 뛰어난 문사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시를 짓곤 했다고 했다. (나)는 안평대군이 열 명의 궁녀들이 지은 시를 평한 말로서, 궁녀들의 시가 안평대군의 문하에 출입하는 성삼문을 위시한 당대의 내로라 하는 문사들의 시보다 낫다는 뜻이다. (다)는 ‘비해당’에 모인 당대의 문인 재사들이 전날 궁녀들이 지은 시를 보고 성당(盛唐)의 음조라고 극찬하고 있을 때 성삼문이 도착해 한 말이다. (라)는 안평대군이 김진사가 지은 시를 평한 말로서, 김진사의 시와 성삼문의 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청아(清雅)함만큼은 김진사의 시가 낫다는 뜻이다.

작품에서 성삼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당대 문인 재사들의 대표로서 비해당의 성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지닌 높은 시안(詩眼)으로 궁녀들의 시를 품평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삼문은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50) 위의 책, 47~48면.

51) 위의 책, 56면.

1456년 세조(이전의 수양대군)의 친국을 받아 처형되었다. 안평대군은 그 3년 전인 1453년 수양대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운영전>에서 두 사람은 대단히 친밀한 사이로 그려져 있다. 안평대군은 성삼문을 ‘근보’라는 자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성삼문을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운영전>에 서술되어 있듯 당시 ‘비해당’에는 집현전 학사를 위시하여 학식과 문재(文才)를 갖춘 재사(才士)들이 많이 출입하였다. 안평대군은 1447년 안견에게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그리게 한 뒤 여러 문사들에게 제발(題跋)을 짓게 했는데, 김종서(金宗瑞), 최항(崔恒),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 성삼문 등 20여명의 글이 현재 전한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쓴 <몽유도원기>(夢遊桃源記)라는 글에서 이리 말하고 있다.

정묘년(1447) 4월 20일 밤, 내가 자려고 자리에 눕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고 꿈을 꾸게 되었다. 문득 인수(仁叟: 박팽년의 자·인용자)와 더불어 한 산 아래에 이르렀는데, 산봉우리가 중첩되고 골짜기가 깊어 험준하고 그윽하였다. (...) 이에 한참 동안 배회하며 바라보다가 인수에게 말했다. “‘암벽에 나무를 걸치고 골짜기를 뚫어 집을 지었다’⁵²⁾라고 한 것이 아마 이를 말할 테지. 정녕 여기가 도원동(桃源洞)이로구나.” 마침 곁에 몇 사람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정보(貞父: 최항의 자·인용자), 범옹(泛翁: 신숙주의 자·인용자) 등으로서, 『동국정운』(東國正韻)을 함께 편찬한 이들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늘, 어찌서 도원에 노닐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 몇 사람일까? 생각건대 그들의 성벽이 그윽하고 외진 곳을 좋아해 본디 산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데다 내가 이 몇 사람과 교분이 몹시 두터운 까닭에 그리 됐을 것이다.⁵³⁾

이 글에 의하면 안평대군이 특히 가깝게 지낸 인물은 박팽년, 최항, 신숙주이다. 안평대군이 책임을 맡아 『동국정운』이라는 운서(韻書)를 편찬할 때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최항 등 여러 문사가 참여했지만 안평대군이 특히 가깝게 여긴 인물은 박팽년, 최항, 신숙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셋 중 박팽년이

52) 한유의 시 <桃源圖>의 한 구절이다.

53) “歲丁卯四月二十日夜，余方就枕，精神蘊栩，睡之熟也，夢亦至焉。忽與仁叟，至一山下，層巒深壑，巖峯窈窕。 (...) 於是，踟躕瞻眺者久之，謂仁叟曰：‘架巖鑿谷開家室，豈不是與！實桃源洞也。’傍有數人在後，乃貞父·泛翁等，同撰韻者也。 (...) 余之相好者多矣，何必遊桃源而從，是數子乎？意其性好幽僻，素有泉石之懷，而與數子者交道尤厚，故致此也。”

안평대군의 최측근이었다. 그러니 박팽년과 나란히 말을 타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박팽년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동배(同輩)가 모두 박인수를 추중(推重)하여 ‘집대성’이라고 했다. 그가 경술(經術), 문장, 필법이 모두 훌륭한 것을 이른 말이다.⁵⁴⁾

남효온(南孝溫)이 <육신전>(六臣傳)에서 박팽년을 맨 첫 인물로 입전한 것은 그러므로 다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안평대군은 자신이 꾸 꿈을 기록한 <몽유도원기>를 박팽년에게 보여 주고 그 서문을 짓게 하였다. 이것이 현재 전하는 <몽도원서>(夢桃源序)이다. 물론 안평대군은 성삼문에게도 <몽유도원기>와 <몽유도원도>를 보여주고 시를 짓게 했지만 그가 박팽년만큼 성삼문을 친근히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운영전>의 작자는 왜 안평대군의 옛 일을 말하면서 안평대군이 절친하게 지낸 박팽년이나 최항이나 신숙주 같은 인물은 일절 거론하지 않고 유독 성삼문을 ‘특칭(特稱)’한 것일까? 최항이나 신숙주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수양대군의 편에 선 인물들이기 때문일 터이다. 즉 이들은 안평대군의 권고(眷顧)를 저버린 자들이다. 그렇다면 박팽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실제라면 성삼문의 자리에 박팽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팽년은 최항이나 신숙주처럼 하자가 있는 인물도 아니며 성삼문과 함께 사육신의 한 사람이 아닌가? 이리 보면 <운영전>에서 성삼문이 안평대군의 최측근이며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그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이 ‘이례성’은 이 작품의 작자가 성로라는 데서 잘 설명된다.

본고의 제2장에서 밝혔듯 성삼문은 성로의 삼종조이다. 두 사람은 촌수로 따지면 8촌간이다. 성로의 종중조인 성담수는 남효온과 함께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꼽히며, 중증인 성담명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과 관련해 지조를 지켜 평생 벼슬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로의 집안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끝까지 맞섰다. 종래에는 성로가 평생 벼슬하지 않은 것이 조부 성운의 흠을 의식해서 이거나,⁵⁵⁾ 스승 정철의 정치적 부침(浮沈)을 목도하며 환로에 환멸을 느꼈기

54) “儕輩皆推朴仁叟爲集大成，謂其經術·文章·筆法俱善也。”

때문일 것⁵⁶⁾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후인의 추정일 뿐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로는 일찍이 사옹원 참봉과 제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는데 벼슬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말단 경관(京官)을 지내다가 출륙(出六)하여 지방관으로 나갈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또한 소과만 합격하고 벼슬에 뜻이 없어 대과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민이 쓰는 패랭이를 쓰고 다니며 방외인으로 살다 생을 마감했다. 명문의 후예이면서 그가 이런 삶을 산 것은 단지 조부의 흠 때문도 아니며, 스승의 정치적 부침에 대한 세인(世人)의 태도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만도 아니다. 여기에는 삼종조 성삼문, 종중조 성담수, 증조 성담명 이래의 집안 내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로는 1550년에 태어났으니 16세기 후반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이나 됐는데 아직도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의 도덕적 정당성을 문제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임제는 생년이 1549년이고 몰년이 1587년이니 성로와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가 남긴 <수성지>(愁城誌)에 사육신이 언급되고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맨 뒤에는 중국의 복식과 다른 의관을 갖춘 이들이 있었다. 혹 한 몸에 5백년 강상(綱常)의 무게를 짊어진 채 한림학사와 호두장군(虎頭將軍) 대여섯 명이 무리를 지어 헌걸차게 들어왔다.⁵⁷⁾

임제는 충의문(忠義門) 안에 있는 중국 역대의 충의지사(忠義之士)들을 쭉 열거한 다음 맨 끝에 슬그머니 조선의 사육신을 거론하고 있다. <수성지>에는 중국의 온갖 인물들이 거명되지만 조선인으로는 사육신이 유일하다. 임제는 내심 이 사육신을 말하기 위해 중국의 온갖 인물들을 거론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육신과 관련해 ‘5백년 강상(綱常)’을 운위하고 있음이 특히 주목된다. 임제의 이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

55) 이종목, 앞의 논문, 6면.

56) “初授授司饗院參奉，再除齊陵參奉，而皆不起。松江爲時輩所吹毛，公以其門徒，亦困於唇舌，益無意於世。”(이경석, <성석전선생행장>)

57) “最後有衣冠似異於華制者，或以一身，任五百年綱常之重，鸞坡學士·虎頭將軍，五六爲羣，昂昂而來。”(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소명출판, 2007, 187면)

통시대의 문인 지식인들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대한 항거나 단종에 대한 절의의 고수를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적어도 임제는 그것이 조선 왕조 '5백년 강상'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옳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성로는 임제와 달리 집안의 '과거'가 있었다.

이로 보면 성로가 '방외인'으로 산 것은 필경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성로는 스스로 자신의 글들을 다 태워 버렸기에 지금 전하는 자료에서는 이 점이 뚜렷이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시를 통해 그가 지조의 문제를 엄중히 고민했음을 엿볼 수 있다.

상(商)나라 주(紂)의 악 비록 심하나
백이 숙제는 주(周)나라 섬기지 않았지.
동진(東晉)의 도처사(陶處士)는
명절(名節)이 지금까지 전해 오누나.
紂惡雖云甚, 夷齊不事周.
晉家陶處士, 名節至今流.⁵⁸⁾

<역사를 노래하다>(詠史)라는 시다. 제4구에 보이는 '명절(名節)'이라는 단어는 명분과 절의를 뜻한다. 절의를 지키기 위해 수양산에 은거한 백이, 숙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 귀거래한 도연명 세 사람을 거론하고 있다. 성로는 술에 취해 자연을 읊조리며 세속을 잊고 지내고자 했기에 만년에 특히 도연명을 좋아했다.

성로는 김시습, 남효온, 임제로 이어지는 방외인적 문인의 맥을 잇고 있다고 여겨진다.⁵⁹⁾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지어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을 비판함과 동시에 절의에 최고의 심미적 가치를 부여했으며, 남효온은 <육신전>을 지어 세조를 비판하고 사육신의 절개를 현창했고, 임제는 <원생몽유록>과 <수성지>를 지어 사육신의 충의에 크나큰 의미를 부여했다. 성로는 이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그 삶이나 미적 실천에서 김시습과도 다르고 남효온과도 다르며 임제와도 다른 길을 갔다고 보인다.

58) <詠史>, 『석(상)』, 5a~5b.

59) 성로는 임환(林權)과 교분이 두터웠는데, 임환은 임제의 넷째 동생이다.

3. 작중에서 김진사가 이백을 최고의 시인이라 한 점

작중에서 안평대군은 김진사에게 옛날 시인 중 누가 최고냐고 묻는다. 이에 김진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백은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의 곁에 있다가 현포(玄圃)에서 노닐던 중 신선의 술을 다 마시고 취흥을 못 이겨 천상의 꽃을 꺾고는 비바람을 따라 인간으로 떨어진 듯한 기상입니다. 노조린과 왕발은 바다의 신선으로, 해와 달의 뜨고 짐과 오색구름의 천변만화, 바다 물결의 출렁임, 고래가 물을 뿜어내는 모습, 섬의 아득함, 초목의 무성함, 물보라와 마름 잎, 물새의 노래, 교룡의 눈물, 이 모두를 드넓은 가슴속에 품었으니, 시 속의 조화가 무궁하다 하겠습니까. 맹호연은 소리의 울림이 가장 뛰어나니, 사광(師曠)을 배워 음률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상은은 신선술을 배워 일찍부터 시마(詩魔)의 부림을 받았으니, 일생 동안 지은 시가 귀신의 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야 굳이 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⁶⁰⁾

이에서 보듯 김진사는 단연 이백을 최고의 시인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조린, 왕발, 맹호연, 이상은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당나라 시인들이다. 김진사는 두보나 송시(宋詩)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진사가 인정하는 시인들은 모두 신선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나중에 따로 논하기로 한다.

김진사의 이 말에 안평대군은 두보는 어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이에 김진사는 이리 말한다.

속된 선비들이 숭상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말한다면 불고기나 회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거늘, 두보의 시는 참으로 불고기나 회라 하겠습니까.⁶¹⁾

안평대군은 어이가 없어 백체(百體)를 두루 갖춘 두보를 어찌 가벼이 여기느냐고 힐난한다. 이에 김진사는 이리 말한다.

60) 『사랑의 죽음』, 51~52면.

61) 위의 책, 52~53면.

그러나 이백과 견주어 보자면 하늘과 땅, 바다와 강의 차이가 난다 할 것이요, 왕발과 맹호연에 견주자면 두보가 수레를 몰아 앞서 달리매 왕발과 맹호연이 채 짝을 들고 길을 다룬다 하겠습니까.⁶²⁾

두보는 이백과는 상대가 되지 않으며, 왕발이나 맹호연의 급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선의 문인들은 일반적으로 두시를 높이 평가했다. 그 점은 조선 전기나 후기나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세종 25년인 1443년 국가적 사업으로 두시의 번역에 착수했으며, 장장 38년만인 성종 12년인 1481년에 번역이 끝나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라는 이름으로 초간본이 나왔다. 이것만 봐도 조선에서 두시가 얼마나 존중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조선에서 이백은 두보만큼 떠받들어지지 않았으며, 그 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16세기 후반 조선에서 당시풍(唐詩風)의 바람이 불 때 이백의 특장(特長)인 악부시가 최경창, 백광훈, 이달, 임제, 이수광 등 일부 문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문인은 이백을 본떠 여성 독백화법의, 여성적 정조(情調)가 두드러진 염정시(艷情詩) 내지 향림체(香奩體)의 한시들을 창작하곤 했다.⁶³⁾

하지만 이들 문인이 이백과 두보를 마주세우면서 이백이 두보보다 훨씬 낫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백의 존재 특성은 ‘술’과 ‘신선’, 이 둘에 의해 표상된다. 이들 문인은 이백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백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감정, 자신의 세계 감정을 드러낼 정도의 상태에 있지는 못했으며, 그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이백을 수용한 데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운영전>의 김진사는 이백을 ‘천상의 신선’이라며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하고, 두보는 속유들이나 숭상하는 시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가령 다음에서 보듯 권필만 하더라도 두보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62) 위의 책, 53~54면.

63) 최경창의 <采蓮曲>, <閨思>, <宮怨>, 백광훈의 <採菱曲>, <效香奩體>, 이달의 <江南曲>, <宮詞>, 임제의 <奩體>, <香奩>, 이수광의 <염체>, <궁사>, <春宮怨>, <향림체>와 같은 것이 염정시나 향림체 시에 해당한다. 박혜숙, 『한국한시의 장르적 시각』(소명출판, 2019), 159면 참조. 성로는 염정시나 향림체 시를 많이 창작했는데 이는 그가 상기한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백의 악부시의 영향을 받아서다. 이 점에서 성로는 비록 상기한 문인들과의 교류는 없었으나 문학적 풍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두보의 문장은 세상이 으뜸으로 삼나니
 한번 펼쳐 읽으면 한번 가슴이 열리지.
 신령한 바람 뽁뽁 골짜에서 일고
 천상의 음악 잉잉 고종(古鐘)에서 나오네.
 구름 걷힌 창공에 상쾌한 매가 비끼고
 달 밝은 바다에 못 용이 장난하네.
 아련한 선산(仙山)의 길 걸어 들어가니
 천봉(千峯)과 만봉(萬峯)이 있음을 깨닫게 되네.
 杜甫文章世所宗, 一回披讀一開胸。
 神飈習習生陰壑, 天樂嘈嘈發古鐘。
 雲盡碧空橫快拍, 月明滄海戲群龍。
 依然步入仙山路, 領略千峯更萬峯。⁶⁴⁾

<두시를 읽다가 우연히 적다>(讀杜詩偶題)라는 시이다. 이 시에서 확인되는 두보 시에 대한 높은 평가는 비단 권필만이 아니라 권필이 속한 시대의 문인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것일 터이다.

이백을 최고로 치고 두보를 폄하하는 김진사의 시론은 우연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작자의 독특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을 피력한 작자는 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일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적어도 관각문인(館閣文人)은 아니다. 관각문인이라면 당연히 두보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속(時俗)을 따르는 문인이 아니며, 자기대로의 길을 가는 호걸지사(豪傑之士)에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시속을 따르는 문인이라면 당연히 두보를 높여야 마땅하다. 앞의 인용문에서 김진사가 두보를 높이는 사람들을 은근히 ‘속유(俗儒)’에 갖다붙인 것을 보더라도 작자는 속인(俗人) 혹은 ‘속유’와 반대편의 인간으로 추정된다. 작자는 세속에 붙들거나 세속에 영합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일 터이다. 게다가 신선형(神仙型)의 시인들을 높이 평가한 것을 보면—두보는 그런 시인이 아니다—작자는 술을 몹시 좋아하고 신선 취향이 강하며, 침음고사(沈吟苦思)해 시를 짓거나 자구를 조탁(彫琢)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호방하고 꾸밈없이 자신의 성정을 유로(流露)하는 타입의 문인일 터이다. 이런 문예 지향이나 가치 지향은 대개

64) <讀杜詩偶題>, 『石洲集』 권4.

일반적 통념이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저항적’ 지향을 띤다. 이런 저항적 지향의 삶을 사는 인간의 인생 행로가 평탄하거나 화려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작자는 ‘가난’하고 ‘불우’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김진사를 통해 우리는 작자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김진사는 작자의 분신이기 때문이다.

성로의 문예 지향과 가치 지향, 성로의 멘탈리티는 이에 가깝다. 그는 “방달”⁶⁵⁾한 “불기지사”(不羈之士)⁶⁶⁾로서 “불우어세”(不遇於世)⁶⁷⁾했고, “방랑 형해지외”(放浪形骸之外)⁶⁸⁾했으며, “혜강(嵇康)과 완적(阮籍)의 광달(曠達)이 있었고”⁶⁹⁾ “이 세상의 혼탁함을 혐오했다.”⁷⁰⁾ 그리고 “호담선방(好談仙方)”⁷¹⁾했으며 “술을 만나면 반드시 크게 외치며 통음했고”⁷²⁾ “취하면 큰 소리로 노래했다.”⁷³⁾ 김진사가 안평대군 앞에서 지은 7언율시의 미련(尾聯)은 “완공(阮公)⁷⁴⁾이 비록 젊으나 자못 술을 잘 마시니 / 술 독 사이에서 취한 후의 광태 괴이쩍어 하지 마소”(阮公雖少頗能飲, 莫怪瓮間醉後狂)⁷⁵⁾인데, 완적을 자신에 비기고 있음이 주목된다. 김진사의 이 시구에는 작자 성로의 면모가 투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성로는 자신이 옥경(玉京)에 있다가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가)
시는 누구이며 술은 누구인가?
평생 내가 그것을 자임하네.
취하니 가소로워 광기(狂氣)를 부리나니

65) “知公者, 謂公放達.”(<성석전선생행장>)

66) “公可謂不羈之士.”(위의 글)

67) “蓋不遇於世也.”(위의 글)

68) “方其把酒傲睨, 嘯咏湖山, 寄寓昏冥之境, 放浪形骸之外.”(장유, <石田先生祭文>, 『석(하)』 부록)

69) “有嵇阮之曠達.”(위의 글)

70) “抑先生厭斯世之澗濁.”(위의 글)

71) “好談仙方.”(<潛岩傳>, 『석(하)』, 21a)

72) “遇酒必大呼痛飲.”(위의 글, 21b) <潛岩傳>은 성로의 자전이다.

73) “醉酒則大聲放歌.”(위의 글)

74) 阮籍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김진사를 가리킨다.

75)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2판, 350면.

옥경(玉京)에서 처음 귀양 왔을 때 같아라.
 詩是何人酒是誰, 平生重任獨當之.
 醉來可笑狂豪氣, 猶似玉京初謫時.⁷⁶⁾

(나)
 나는 어이해 『황정경』(黃庭經)의 글자를 잘못 읽어
 인간 세상에 귀양과 너희 무리 따르는지.
 오늘 강가에서 한 동이 술 마시나니
 뉘 알리 늙은 기운이 취해 더욱 호기로워지는 줄.
 我何誤讀黃庭字, 謫在人間隨汝曹.
 今日一尊江海上, 誰知老氣醉增豪.⁷⁷⁾

술자리에서 장난삼아 지어 권필에게 준 시들이다. 장난삼아 한 말이라 했지 만 꼭 장난만은 아니다. 성로는 늘 선경(仙經)을 읽고 선술(仙術)을 혹애했으므로⁷⁸⁾ 그의 의식 한 편에 자신이 옥경에 있던 존재인데 잠시 인간 세상에 귀양과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성로는 ‘술’을 좋아하고 ‘신선’을 좋아하고 방달함을 좋아했으니 두 보보다는 이백의 시가 기질적으로나 취미상으로나 더 끌렸을 터이다. 다음에서 보듯 그는 이백을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귀와 공명은 나의 일이 아니요
 유령(劉伶)과 태백(太白)이 나의 스승이라네.
 富貴功名非我事, 劉伶太白是吾師.⁷⁹⁾

<취하여 적다>(醉題)라는 시의 일부인데, ‘유령’은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고 ‘태백’은 이백을 가리킨다. 둘 모두 불세출의 술꾼이었다. 성로의 시에는 신음어(呻吟語)가 없다.⁸⁰⁾ 그가 늘 신음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자다가 죽기를

76) <酒席戲示權汝章>, 『석(상)』, 18a.

77) <醉贈汝章>, 『석(상)』, 18a.

78) 다음 말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平生欲學洞賓仙.”(<走次安景容韻>, 『석(상)』, 11a) ‘동빈선(洞賓仙)’은 당나라의 유명한 신선 여동빈을 말한다.

79) <醉題>, 『석(상)』, 8a.

80) 이 점은 이종묵, 앞의 논문, 9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단 『성석전선생행장』의 “常願不作呻

바란 것처럼⁸¹⁾ 그는 환란과 가난 속에서도 신음 소리를 발한 적이 없다.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은 김진사의 시를 평해, “의당 근보[성삼문-인용재]와 자운을 다룰 것이로되 그 청아한 태같은 성삼문보다 낫구나”⁸²⁾라고 했는데, 이 말 중 ‘청아(清雅)’라는 말이 주목된다. 실로 성로의 시세계가 청아함으로써다. 『석전유고』에는 두보의 시를 차운한 작품도 몇 편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성로가 두시의 침중함을 배운 것은 아니다. 성로의 시는 호탕하고 표일(飄逸)해 전반적으로 이백의 시풍에 가깝다. 두보의 시가 현실주의에 기반해 있다면 이백의 시는 낭만적 정서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이백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개성과 자아를 강렬히 표출하면서 자유로움과 열정을 시에 담았다. 그 결과 두보처럼 세계의 질서와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외면적으로 구축된 질서와 균형에 대립하면서 그에 균열과 불안정을 낳는 데 기여했다. 범박하게 말해 문인의 길에 ‘두보의 길’과 ‘이백의 길’이 두 길이 있다고 한다면 성로의 방외인적 삶과 그 문예적 실천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백의 길에 해당한다. 성로는 그 점을 정확히 자각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바, 김진사의 이백과 두보에 대한 평가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이리 본다면 <운영전>은 이런 문학적 노선의 산문시학적 구현이라 할 만하다.

4. 도선적(道仙的) 취향

<운영전>에는 도선적 상상력이나 취미가 허다히 보인다. 여주인공의 이름 ‘운영’부터가 도선적 취향의 소산이다. ‘운영’은 원래 당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 <배항>(裴航)의 남자 주인공 배항이 남교(藍橋)의 신선굴(神仙窟)에서 만난 선녀 이름이다. 이하 작중에 보이는 도선적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만일 훗날 죽는다면 / 비구름 타고 삼청궁에 오르지 않겠나.”(若待他時應變化, 會乘雲雨上三清)⁸³⁾

吟, 醉臥長逝”라는 구절이 성로의 시에 신음어가 보이지 않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81) “常願不作呻吟, 醉臥長逝”(〈성석전선생행장〉)

82) “當與謹甫爭雄, 而其清雅之態則過之矣.”(『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권, 350면)

83)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권, 344면.

(나) ‘연잎에 이슬방울 남았네그러’라는 구절과 ‘서쪽 산과 앞 시내에 있어라’라는 구절은 천상(天上)의 신선이 아니고선 허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나리의 궁중에 열 사람의 신선이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⁸⁴⁾

(다) 자리에 이르러 절하고 앉는데, 얼굴이며 몸가짐이 신선 세계의 사람이었어.⁸⁵⁾

(라) 이분은 필시 학을 타고 속세에 온 왕자진(王子晉)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야.⁸⁶⁾

(마) 우리 열 사람은 틀림없이 원래 삼청(三清)의 선녀였으나 『황정경』(黃庭經)을 잘못 읽어 인간 세계로 유배 오게 된 걸거야.⁸⁷⁾

(바)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처음 군자의 모습을 뵈고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배 오신 게로구나’하고 생각했답니다.⁸⁸⁾

(사)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남시어 제계 동산의 과실을 따 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蟠桃)와 경실(瓊實)과 금련자(金蓮子)를 많이 따서 사사roi이 운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 이제는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청궁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답니다.⁸⁹⁾

(가)는 <운영전> 전반부에 운영이 포도 시령을 소재로 읊조린 시의 미련(尾聯)이다. ‘삼청(三清)’은 도교에서 말하는 옥청(玉淸), 상청(上淸), 태청(太淸)의 3천(三天)을 이른다. (마)와 (사)에서도 삼청이 언급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삼청을 노래한 성로의 시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시가 그것이다.

84) 『사랑의 죽음』, 48면.

85) 위의 책, 49면.

86) 위의 책, 51면.

87) 위의 책, 67면.

88) 위의 책, 79면.

89) 위의 책, 107~108면.

옥석(玉席)에서 분향하며 선단(仙壇)에 절을 하니
 한밤중 삼청에 이슬 기운 서늘하네.
 하계(下界)는 어둑하여 한창 잠이 들었는데
 홀로 구름가 밝은 달 바라보누나.
 焚香玉席禮仙壇, 半夜三清露氣寒.
 下界昏昏方睡熟, 獨看明月在雲端.⁹⁰⁾

<당시(唐詩)를 본뜨다>(效唐)라는 제목의 시인데, 짙은 도선적 취향이 느껴진다. 제3구의 ‘하계(下界)’라는 단어에서 ‘천상/지상’에 대한 이원적 인식이 잘 드러난다. 이런 이원적 인식은 <운영전>의 (가), (라), (마), (바), (사)에서도 나타난다.

(나)는 성삼문이 열 명의 궁녀가 지은 시를 읽고서는 안평대군에게 한 말이 고, (다)는 운영이 자란에게 안평대군의 거소에서 김진사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말한 것이다. (라)는 김진사를 처음 본 궁녀들의 말이다.

(마)는 자란이 남궁의 소옥에게 궁녀들이 도성 밖 당춘대가 아니라 도성 안 삼청동으로 놀러가야 함을 설득할 때 한 말이다. 주목되는 것은 『황정경』을 잘못 읽어 인간 세계로 유배 오게 된 걸 거』라는 말이다. 이 말은 성로의 시 <술에 취해 여장[汝章: 권필의 자-인용자]에게 주다>(醉贈汝章)의 “나는 어이해 『황정경』의 글자를 잘못 읽어 / 인간 세상에 귀양와 너희 무리 따르는지”(我何誤讀黃庭字, 謫在人間隨汝曹)에서도 보인다. 이 말은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보인다. 다음 대목이 그것이다.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정경』 일자(一字)를 어찌 그릇 읽어두고
 인간(人間)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다.
 저근덧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⁹¹⁾

꿈속에서 선인(仙人)이 정철에게 한 말이다. <관동별곡>의 위 인용문에서

90) <效唐>, 『석(상)』, 10b.

91) 강전섭, 『<관동별곡>의 원전 모색』(『동방학지』 제4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84면. 단 표기는 필자 임의로 현대 한글 맞춤법에 따르고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 처리했다.

는 ‘나’가 선인이고 ‘너’가 적선(謫仙)인데 반해, 성로의 시에서는 ‘나’가 적선이고 ‘너’는 속인이다. 그러므로 성로는 스승 정철의 말을 패러디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관동별곡>의 『황정경』 운운한 말은 당나라 시인 원진(元稹)이 창작한 <주택(州宅)을 낙천(樂天)에게 자랑하다>(以州宅夸于樂天)라는 시의 “나는 옥황상제 향안리(香案吏)로서 / 하계로 유배 왔지만 외려 봉래산에 거주하고 있네”⁹²⁾라는 구절과 소동파가 창작한 <부용성>(芙蓉城)이라는 시의 “삼세(三世)를 오가며 공연히 신선술을 닦았거늘 / 끝내 『황정경』을 잘못 읽는 죄를 범했네”⁹³⁾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 원진은 이봉길(李逢吉)의 음해로 재상에서 물러나 월주(越州: 지금의 절강성 소흥) 자사로 있을 적에 주택(州宅), 즉 월왕대(越王臺)의 경치를 백낙천에게 자랑하느라 이 시를 지었다. 원진의 이 시에는 『황정경』과 관련된 맥락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신이 옥황상제의 향안리였는데 잘못을 범해 하계로 내려와 봉래산에 거주한다고 읊었을 뿐이다. 한편 소동파의 시에서는 『황정경』을 오독한 이가 신선인 건 맞지만 옥황상제의 향안리는 아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문인들 중에는 원진의 시구와 소동파의 시구를 착종하여 ‘옥황의 향안리가 『황정경』을 잘못 읽어 지상의 선구(仙區)—봉래산과 같은—로 귀양왔다’는 맥락으로 시를 지은 이들이 적지 않다.

이리 본다면 시문에서 ‘『황정경』 오독’ 운운이 거론될 경우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황정경』을 오독해 하계로 귀양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옥황의 향안리로 있다가 『황정경』을 오독해 봉래산과 같은 선구로 귀양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범주에서의 귀양은 하계는 대개 고난의 세계다. 그러므로 이 범주는 대체로 불우지사 혹은 불행한 처지에 놓인 인물과 관련된다. 두 번째 범주에서의 귀양은 하계는 선구이므로 이 범주는 대체로 정치가 빼어난 곳에 부임한 지방관이나 정치가 좋은 곳에 거주하는 인물과 관련된다. <관동별곡>은 이 중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92) “我是玉皇香案吏，謫居猶得住蓬萊。”(『元氏長慶集』 권22)

93) “往來三生空煉形，竟坐誤讀黃庭經。”(王十朋撰，『東坡詩集注』 권4) 이 시구에 趙克卿의 다 음과 같은 주가 달려 있다. “『僊家寶』曰：『黃庭內經』，昔有僊人誤讀句字，謫居下界。”

성로와 동시대의 문인 가운데 『황정경』 오독 고사'를 언급한 인물로는 유몽인(柳夢寅, 1559~1623), 이춘영(李春英, 1563~1606), 이식(李植, 1584~1647)을 꼽을 수 있다. 유몽인은 <재간당의 시에 차운하다>(次在澗堂韻)라는 시에서 “『황정경』을 잘못 읽었으나 후회할 것 없네 / 하계로 귀양와도 방장산에서 노닐고 있으니⁹⁴”라고 읊었고 <강선루기>(降仙樓記)⁹⁵라는 문(文)에서 “옥황상제의 향안리가 『황정경』 한 글자를 잘못 읽어 하계로 귀양왔지만 봉래산 좋은 경치를 떠나지 않은 것과 같다⁹⁶”라고 했으며, 이춘영은 <화표주(華表柱). 송강(松江)의 시에 차운하다>(華表柱. 次松江韻)라는 시에서 “송강 거사는 적선(謫仙)이어늘 / 그 옛날 요양성(遼陽城)을 다스렸었지 / 어지러운 인간 세상 어드메인가 / 다시는 『황정경』을 잘못 읽지 마소”(松江居士謫仙人, 往年按節遼陽城. … 人間擾擾竟何有, 更莫錯讀黃庭經⁹⁷)라고 읊었고, 이식은 <사선정. 현판의 이자시 시에 차운하다>(次板上李子時韻)⁹⁸라는 시에서 “『황정경』의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 어젯밤 난새 타고 천계에서 내려왔네”(瑤編一字誤眞經, 昨夜鸞驂下紫冥)라고 읊었다. 이들의 시문은 모두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이와 달리 성로의 시와 <운영전> 중 자란의 말은 모두 첫 번째 범주에 속한다. 이리 본다면 『석전유고』와 <운영전>에 똑같이 동일한 의미연관을 갖는 ‘황정경 오독’이라는 말이 보이는 것은 꼭 우연이라고만 하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바)는 운영이 김진사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말이다. (사)는 작품 말미에서 김진사가 유영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을 통해 독자는 남녀 주인공이 원래 천상에서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잘못을 범해 지상으로 유배온 것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후대의 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적강구조(謫降構造)’의 아키타입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성로의 의식 내부에 ‘적강’의 모티프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앞에서의 논의로 충분히 논증되었다고 여겨지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성로의 이런 의식 세계—혹은 ‘판타지’라고 해도 좋다, 이런 세계관이 <운영전>의 구조를 낳고 있는

94) “黃庭誤讀不須悔, 謫下猶來方丈遊.”(『於于集』 권2)

95) 『어우집』 후집 권4 所收.

96) “如玉皇香案史誤讀黃庭一字而謫, 猶未離蓬萊仙觀也.”(『어우집』 후집 권4)

97) 『體素集』 所收.

98) 『澤堂集』 권5.

것이다.

5. 궁원시(閨怨詩)와 여성의 정조(情調)에 대한 이해

운영은 안평대군의 시첩(侍妾) 열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열 사람 중 특히 운영과 자란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원(哀怨)이 깊었다. 그러던 중 운영은 김진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란은 그런 운영을 돕는다. 이처럼 <운영전>은 유폐된 공간에 있던 한 어린 궁녀가 외부인과의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는 것을 그 골조(骨組)로 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서 여성의 욕망이 적극적으로 긍정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궁녀라는 특수한 처지에 있는 여성의 욕망을 문학화하는 독특한 장치가 있었다. ‘궁원시(宮怨詩)’가 그것이다. <운영전>은 바로 이 궁원시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서사로 풀어냈다는 점이 새롭고도 놀라운 동아시아적 창안이라 할 것이다.⁹⁹⁾ 어떤 면에서 보면 <운영전>은 소설로 쓴 궁원시라고 할 만하다. 실제 작중에서 궁녀들은 중국의 궁원시 중 어떤 것이 훌륭한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¹⁰⁰⁾ 뿐만 아니라 자란의 다음 말은 산문으로 진술된 궁원시 연작이라 이를 만하다.

우리 열 사람은 틀림없이 원래 삼청의 선녀였으나 『황정경』을 잘못 읽어 인간 세계로 유배 오게 된 걸거야. 이미 속세로 내려왔으니 산 속의 외딴집이든 들녘 마을이든 농사짓는 집이든 생선 파는 가게든 어느 곳이라도 좋겠건만, 하필 깊은 궁궐에 갇혀 새장 속의 새처럼 꾀꼬리 우는 소리에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마주하여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우리네 신세로구나. 심지어 제비도 쌍쌍이 날고 수풀에 깃들인 새도 나란히 잠들며 풀 중에도 합환초(合歡草)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리목(連理木)이 있으니, 무지한 초목으로부터 지극히 미천한 새들에 이르기까지 음양을 품부받아 서로 사귀며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없지 않나. 그렇건만 우리 열 사람은 유독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오래도록 적막한 궁궐 깊숙한 곳에 갇혀 지내며, 꽃 피는 봄이건 달 뜨는 가을이건 외로이 등불을 짝하여 혼을 사그라뜨리고 청춘을 헛되이 보내

99) <운영전> 창작의 연원으로 ‘궁원시’를 주목한 연구로 이지영, 앞의 논문이 있다.

100) 『사랑의 죽음』, 44면.

다가 죽어서까지 공연히 한을 남겨야 하는 걸까? 타고난 운명이 기박하다 해도 어찌 이리 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인생은 한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으니, 너도 다시 생각해 보렴. 왜 슬프지 않겠니?¹⁰¹⁾

한시의 전통에서 보면 궁원시는 규원시(閨怨詩)·규원사(閨怨詞)와 통한다. 둘 모두 외로움 속에 있는 젊은 여성의 애한(哀恨)을 읊고 있기 때문이다. 성로는 규원시를 많이 썼다. 『석전유고』 중 이 종류에 해당하는 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염곡, 효고4수>(艷曲, 效古四首)¹⁰²⁾
- <차향렴운 3수>(次香奩韻三首)¹⁰³⁾
- <향렴체 3수>(香奩體三首)¹⁰⁴⁾
- <규녀사 10수>(閨女詞十首)¹⁰⁵⁾

이들 시 모두가 규원을 읊은 것은 아니며, 채련(採蓮)하는 여인이라든가 남자를 유혹하는 창기라든가 근로하는 여성을 읊은 시도 있기는 하나¹⁰⁶⁾ 그 대부분은 규원시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문집을 보면 규원시가 실려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지만 대개 한두 수나 두어 수 정도이지 이렇게 많은 규원시가 실린 경우는 보기 어렵다. 또 규원시라고는 하나 시인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규중의 여성에 가탁하여 읊조린 것이 많고 여성의 가련한 신세 자체를 읊조린 것은 드문 편이다. 이와 달리 성로의 규원시는 대개 후자에 해당한다.¹⁰⁷⁾ 몇 개만 예를 들어본다.

101) 위의 책, 67~68면.

102) 『석(상)』, 2b~3a.

103) 위의 책, 14a.

104) 위의 책, 14b.

105) 위의 책, 17b~18b.

106) 가령 <규녀사 10수>의 제1수는 채련하는 여인을 읊었고, 제8수는 남자를 유혹하는 기녀를 읊었으며, 제9수는 뽕잎을 따는 여성을 읊었다.

107) 하지만 성로가 꼭 규원시에 자신의 신세를 寓意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버려지거나 기박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많이 읊은 것은 불우한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일종의 동병상련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가)

십이루(十二樓) 주렴 걷으니
 푸른 하늘은 물 같은데 저녁 구름에 근심이 이네.
 옥통소로 <강남롱>(江南弄) 연주 마치니
 명월이 섬돌에 가득하고 오동잎이 가을을 알리네.
 十二樓頭簾在鉤, 碧天如水暮雲愁.
 玉簫吹罷江南弄, 明月滿階梧葉秋.¹⁰⁸⁾

(나)

궁궐의 나무 무성하여 전문(殿門)을 에웠는데
 누각에 달이 지고 물시계 소리 잦아라.
 병풍 앞의 잔촉(殘燭)에 외로운 잠 깨니
 앵무새가 서리에 놀라 밤중에 사람을 부르네.
 宮樹沈沈鎖殿門, 樓頭月落漏聲頻.
 金屏殘燭孤眠罷, 鸚鵡驚霜夜喚人.¹⁰⁹⁾

(나)부터 보자. 이 시는 궁녀의 애원을 읊었다. ‘전문(殿門)’은 궁궐의 문을 이르는 말이다.

(가)에서 ‘십이루(十二樓)’는 원래 선인(仙人)이 산다는 옥경(玉京)의 십이경루(十二瓊樓)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청루(靑樓)를 이른다. ‘강남롱(江南弄)’은 남조(南朝) 양(梁) 무제(武帝)가 지은 악부의 곡 이름이다. 성로의 이 시는 당나라 온정균(溫庭筠)이 지은 <요슬원>(瑤瑟怨)이라는 시와 의취(意趣)가 비슷한바 이를 환골탈태한 듯하다. <요슬원>은 다음과 같다.

서늘한 샷자리 깎 침상에서 잠 못 이루나니
 푸른 하늘은 물 같은데 밤 구름 가볍네.
 기러기 소리 멀리 소상강 지나가고
 십이루에 달은 절로 밝아라.
 冰簟銀床夢不成, 碧天如水夜雲輕.
 雁聲遠過瀟湘去, 十二樓中月自明.

108) <次香奩韻三首>의 제3수.

109) <香奩體三首>의 제2수.

‘십이루’라는 단어나 ‘푸른 하늘은 물 같은데’(원문은 ‘碧天如水’)라는 구절이 완전히 같다. ‘碧天如水’는 당시(唐詩)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말이며,¹¹⁰⁾ 송대 이후에 많이 쓰였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창작된 조선의 한시에도 이 말이 사용된 용례는 그리 흔치 않다.¹¹¹⁾ 그런데 성로의 연인 설죽이 다음에서 보듯 비슷한 말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천(洞天)은 물 같은데 달이 어스름하고
낙엽이 삭삭 지고 밤에 서리가 내리네.
열두 굽이 난간의 집에서 홀로 자면서
부질없이 병풍에 그린 원앙새를 부러워하네.
洞天如水月蒼蒼, 木葉蕭蕭夜有霜.
十二曲欄人獨宿, 玉屏空羨畫鴛鴦.¹¹²⁾

<추소원>(秋宵怨)이라는 시인데, 성로의 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죽의 시 가운데는 이외에도 성로의 영향이 확인되는 것이 상당수 있다.¹¹³⁾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성로의 시에 보이는 ‘벽천여수’라는 말이 <운영전>에서 김진사가 안평대군 앞에서 즉흥적으로 지은 7언율시의 수련(首聯)에 보인다는 사실이다. 다음이 그것이다.

금당(金塘)에 안개 흩어져 이슬 기운 서늘한데
푸른 하늘은 물 같은데 밤은 어이 그리 긴고.
烟散金塘露氣涼, 碧天如水夜何長.¹¹⁴⁾

이는 성로의 규원시 창작 경험이 <운영전>에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 경우 김진사의 시는 물론 규원시는 아니다. 하지만 <운영전>에서 운영이

110) 唐詩에 사용된 용례로는 셋이 확인된다. 하나는 李益의 <詣紅樓院, 尋廣宣, 不遇留題>라는 시의 “柿葉翻紅霜景秋, 碧天如水倚紅樓”라는 구절이고, 둘은 劉禹錫의 <秋聲并序>라는 시의 “碧天如水兮, 宵宵悠悠”라는 구절이며, 셋은 방금 든 온정균의 <瑤瑟怨>이다.

111) 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DB를 검색해 보면 성로와 동시대의 인물 중 백광훈, 柳成龍, 이달, 李安訥, 具容 등 몇 사람이 이 말을 썼다.

112) <秋宵怨>, 『雪竹詩稿』, 5b.

113) 이원걸, 앞의 논문, 14면의 각주 36번 참조.

114)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349면.

옳은 다음 시들은 규원시가 틀림없다.

(가)

멀리 푸른 연기 자세히 바라보다가
 미인은 김 찢는 걸 그만두누나.
 바람 맞으며 홀로 서글퍼하나니
 날아가 무산(巫山)에 떨어지누나.
 望遠青烟細, 佳人罷織紉.
 臨風獨惆悵, 飛去落巫山.¹¹⁵⁾

(나)

베옷 입고 가죽 띠 두른 선비
 옥 같은 얼굴 신선과 같지.
 늘 주렴 사이로만 바라보나니
 월하노인의 인연 어이 없는지.
 뺨히 보니 눈물이 물이 되고
 거문고 타니 한스러움 줄을 울리네.
 가슴속 원망 끝이 없어서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布衣草帶士, 玉貌如神仙.
 每向簾間望, 何無月下緣.
 洗眼淚作水, 彈琴恨鳴絃.
 無限胸中怨, 擡頭獨訴天.¹¹⁶⁾

(다)

깊디깊은 누각 사립문 닫힌 저녁
 나무 그늘, 구름 그림자 모두 희미해라.
 떨어진 꽃과 흐르는 물은 도랑으로 나오고
 제비는 진흙 물고 둥지로 돌아가네.
 배개 배어도 호접몽 이루지 못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나 소식이 없네.

115) 『사랑의 죽음』, 41~42면;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342면.

116) 『사랑의 죽음』, 56~57면;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351면.

그대 얼굴 눈앞에 어른거리건만 왜 말이 없는지
 수풀에 피꼬리 우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樓閣重重掩夕扉, 樹陰雲影摠依微。
 落花流水隨溝出, 乳燕含泥趁檻歸。
 欹枕未成蝴蝶夢, 眼穿懸望雁魚稀。
 玉容在眼何無語, 草綠鶯啼淚濕衣。¹¹⁷⁾

성로가 규원시를 많이 지은 것은 연인 설죽과 무관하지 않다. 성로는 설죽과 정을 주고받으면서 그녀의 처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그녀의 수심(愁心), 외로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동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죽이 서호에 있을 때 지은 시 중에는 고향 봉화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객지에서 느끼는 수심과 외로움을 읊은 것이 적지 않다. 이런 시들은 그 제목이야 어떻든 실제상 규원시에 가깝다. 몇 개 예를 들어본다.

(가)
 나무끝의 초생달 비스듬히 주렴에 비치는데
 저물녘 되니 수심이 더욱 커지네.
 잠이 안 와 수각(水閣)에 고요히 오래 앉으니
 깊은 밤 썰물 되어 모랫벌이 보이네.
 樹頭纖月映簾斜, 愁到黃昏轉更加。
 水閣無眠清坐久, 夜深潮落見平沙。¹¹⁸⁾

(나)
 떠나온 일 생각하니 몹시 한스러워
 만리 밖 고향에 돌아가고픈 마음.
 부질없는 이내 신세
 평생 서호에 부쳐살고 있네.
 念別千般恨, 懷歸萬里情。
 空將此身世, 湖上寄平生。¹¹⁹⁾

117) 『사랑의 죽음』, 62면;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354면.

118) <次成進士石田韻>, 『설죽시고』, 8a.

119) <遺懷>, 위의 책, 4a.

(다)

가을 되니 강촌의 수각(水閣)이 맑은데
 차가운 조수(潮水) 적막 속에 문 앞 지나며 소리 내네.
 오늘 밤 한량없이 부모님 그리며 눈물 흘리나니
 귀몽(歸夢)도 꾸이지 않고 달만 성(城)에 오르네.
 秋後江村水檻清, 寒潮寂寞過門聲.
 今宵無限思親淚, 歸夢難成月上城.¹²⁰⁾

(라)

강남에 가을비 내려 참으로 쓸쓸한데
 하늘 끝에 병들어 누워 한량없이 우네.
 내 집은 안동인데 못 돌아가고
 꿈속의 혼(魂)만 길이 석천(石泉) 서쪽을 가네.
 江南秋雨正淒淒, 臥病天涯無限啼.
 家在福州歸未得, 夢魂長落石泉西.¹²¹⁾

(마)

맑은 밤 깊고, 바람 정히 세찬데
 창가에 홀로 앉아 강물 소리 듣네.
 적적한 초당에 아무도 안 와
 일점(一點) 잔등(殘燈)이 내 마음 비추네.
 清夜沈沈風正急, 窓間獨坐聽江聲.
 草堂寂寂無人到, 一點殘燈照我情.¹²²⁾

(라)에서 ‘안동’과 ‘석천’을 말한 것은 설죽의 고향이 봉화의 석천이라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시들에서 볼 수 있듯 설죽은 서호에 있으면서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심에 차 있곤 했다. 본고의 제2장에서 살핀 바 있는 <밤의 회포 2수>(夜懷二首)에는, 고향이 그리워 슬퍼하는 설죽에 공감하며 측은한 마음으로 그녀를 응시하는 성로의 눈길이 어른거리고 있다.

120) <秋後>, 위의 책, 6a.

121) <病憶山家>, 위의 책, 11a.

122) <寄七松二首>의 제2수, 위의 책, 8b.

성로와 설죽은 존재관련이 이처럼 깊은 사이였기에 성로의 규원시 중에는 다음에서 보듯 설죽을 모델로 했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지 않다.

(가)

남포(南浦)의 어귀에 집이 있는데
나루에는 행인이 드무네.
버들가지는 아래로 드리우고
버들개지는 날아 옷에 붙네.
낭군이 배로 돌아가려 해
미인이 눈썹을 찡그리누나.
家在南浦口, 渡頭行人稀.
柳條垂拂下, 柳花飛撲衣
阿郎欲回船, 美人顰蛾眉.¹²³⁾

(나)

미인이 화전(花箋)을 자르더니
정을 머금어 오랫동안 편지를 못 쓰네.
비단옷은 침상에 개여 있고
머리는 어지러이 빗질도 안 했네.
사람을 등지고 몰래 눈물 흘리다가
주름 열고 앞의 뜨락으로 내려가누나.
美人剪花箋, 含情久不書.
羅衣疊在床, 綠髮亂不梳.
背人暗垂淚, 開簾下前除.¹²⁴⁾

(가)의 ‘남포(南浦)’나 ‘나루’는 설죽의 거소와 관련된 말이다. (나)에서 ‘화전(花箋)’은 고운 편지를 말한다. 설죽은 고향집에 편지를 부치곤 했다. 『설죽 시고』에는 설죽이 고향집의 막내 남동생인 칠송(七松)에게 부친 시가 여러 수 실려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고향집에 편지를 쓰려다가 그만 가슴이 멍멍해 쓰지 못하는 설죽을 떠올리게 한다. 제5구 “사람을 등지고 몰래 눈물 흘리다

123) <閨女詞十首>의 제2수, 『석(하)』, 17b.

124) <閨女詞十首>의 제5수, 위의 책, 18a.

가”라는 표현에서는 성로의 다심(多心)과 측은해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랑은 때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경계를 넘어서게 하곤 한다. 사랑의 힘이다. 성로는 설죽과의 사랑을 통해 미친한 여성의 처지와 정한(情恨)을 더욱 잘 알게 되고,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한다. 더군다나 성로는 불우했기에 가련한 처지에 있는 여성의 정조(情調)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¹²⁵⁾

운영과 김진사는 신분이 다르다. 운영은 미친한 하향(遐鄉) 출신의 궁녀이고 김진사는 경성의 사대부다. 이 둘의 신분 관계는 설죽과 성진사의 신분관계와 상동적이다. 이들은 이런 신분 격차를 뛰어넘어 정인(情人)이 되어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설죽이 성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성로가 죽은 후 지은 다음의 만사에서 잘 드러난다.

적막한 서호가 초당을 에워쌌는데
봄날 초당에는 주인 없고 벽도화(碧桃花)만 향기롭네.
청산 어느때에 호걸의 뼈가 묻혔나
강물만 말없이 유유히 흐르네.
寂寞西湖鎖草堂, 春堂无主碧桃香.
青山何處埋豪骨, 唯有江流不語長.¹²⁶⁾

125) 성로는 아들이 없고 딸만 돌이었다. 하지만 그는 양자를 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 만딸의 효성이 出天하니 이것이 위로가 될 만하다”(吾長女誠孝出天, 此可爲慰: <성석전선생행장>, 『석전유고(하)』, 24b)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外孫奉祀를 택했다. 적장자 상속이 확립된 것은 17세기 후반 이후이니, 성로의 시대에는 아직 외손봉사가 드물지는 않았다. 그렇기는 하나 그가 재혼해 아들을 얻으려고 피하지도 않고 양자를 세우지도 않은 것은 딸에 대한 진폭적 신뢰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로의 남다른 태도가 얼마간 느껴진다. 성로가 설죽 같은 女婢 출신의 미친한 여성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가에 경도되어 기존 삶의 질서와 규범을 벗어나 방외인으로서 자유롭게 세상을 살았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26) <哭挽成進士石田>, 『설죽시고』, 4b. 『설죽시고』 맨 뒤에 첨부된 <事蹟>에 따르면 이 만시는 성로가 봉화 權來 집안의 靑巖亭에 놀러왔을 때 설죽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했는데 좌객들이 설죽에게 “네가 만일 성로의 生挽詩를 지어 우리를 울린다면 성로를 잠자리에 모시게 해 주겠다”(爾能生挽成, 使之淚下, 則當薦枕矣)라고 하자 설죽이 즉각 이 시를 읊조려 좌객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이에 그녀의 詩名이 세상에 회자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여겨진다. 혹 당시 설죽이 무슨 시를 지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꼭 이 만시는 아닐 것이다. 이경석이 쓴 성로의 행장에 의하면 성로가 죽은 것은 1615년 3월 5일이다. 설죽이 만사에서 읊은 것처럼 봄에 죽은 것이다. 설사 설죽이 생만시를 썼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실제 상황에 딱 맞게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 만시는 깊이가 있어 두 사람의 존재관련이

실제로 <운영전>에는 성로와 설죽의 존재관련이 얼마간 투사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음은 운영이 김진사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제 고향은 남쪽 지방입니다. 부모님은 여러 자식 중에서도 유독 저를 사랑하셔서 집 밖에서 장난하며 놀 때에도 저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셨답니다. … 부모님은 처음에 『삼강행실도』와 『칠언당음(七言唐音)』을 가르쳐 주셨지요. 열세 살에 주군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기에 저는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들과 떨어져 궁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그리는 정을 금할 수 없었기에 보는 사람들이 저를 천하게 여겨 궁중에서 내보내도록 만들려고 날마다 험클어진 머리에 피죤진 얼굴로 남루한 옷을 입은 채 뜨락에 었드려 울었어요.”¹²⁷⁾

이 인용문을 통해, 디테일은 물론 다르지만 운영과 설죽 간에는 통하는 점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고향이 남쪽 지방이라는 점. 둘째, 어릴 때부터 시를 지을 줄 알았다는 점.¹²⁸⁾ 셋째, 부모와 형제를 떠나 서울로 오게 되었다는 점. 넷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점.

이 점에 유의한다면 운영의 형상에는 설죽이 얼마간 들어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단지 이뿐만이 아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에는 설죽과 성진사의 사랑이 반영되거나 참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성로는 설죽과의 존재관련, 설죽과 나는 사랑의 경험으로 인해 <운영전>이라는 문제작을 구상하고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6. 일탈적 사랑에 대한 로망

성로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일탈적 사랑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로고스보다는 파토스가 더 승(勝)했던 인물로 판단된다. 술을 즐기고, 가무를 즐기고,¹²⁹⁾ 이백을 좋아하고, 『남화경』과 도가서(道家書) 읽기를 즐

깊어진 이후에나 지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 실제 성로가 죽고 난 후에 쓴 시로 봄이 옳을 듯하다.

127) 『사랑의 죽음』, 78면.

128) “才調伶俐而超逸，每於聽壁間，窺聽課讀之聲，解其文義，遂能文而長於詩。”(<事蹟>，『설죽 시고』)

129) 성로가 가무를 좋아했음은 『석전유고』 곳곳에서 확인된다. 가령 다음의 시가 참조된다. “有客有客字重任，平生不學但痛飲。三千之罪無後大，如何老去愚太甚。醉輒拳舞又狂歌，不省傍人笑侮

겨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이것들은 질서와 규범에 기여하기보다는 자유, 환상, 열정, 감성의 해방, 체제의 균열을 낳는 쪽으로 작용한다.

성로에게 일탈적 사랑에의 로망이 있었음은 다음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

(가)

연소한 우림랑(羽林郎)
호기로운 데다 용력이 있네.
공공연히 인가에 침입해
상서(尙書)의 첩을 희롱하네.
年少羽林郎, 驍豪有勇力.
公然入人家, 調戲尙書妾¹³⁰⁾

(나)

우객(羽客)이 벽해(碧海)를 청소해
항아가 지금 막 왔네.
두꺼비는 폴짝폴짝 뛰고
흰 토끼는 함께 배회하네.
먼저 금물결 떠서 얼굴을 씻고
옥거울을 여누나.
잠시 신녀(神女)의 사당 엿보고
뒤이어 초왕(楚王)의 양대(陽臺)에 오르네.
羽客掃碧海, 嫦娥今始來.
彩蟾已跳躍, 白兔共徘徊.
先挹金波洗, 仍將玉鏡開.
新窺神女廟, 漸上楚王臺.¹³¹⁾

(가)는 <협객행 2수>(俠客行二首)의 제2수이다. ‘협객행’은 악부시제(樂府詩題)의 하나로서, 협사(俠邪)나 연소한 악소배(惡少輩)의 거리낌 없는 행위를 읊조리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호기롭게 말을 몰고 주막에서 술을 마신다

多.”(<大醉中走筆四首>의 제1수, 『석(상)』, 19b); “西湖狂客能拳舞, 置酒鳴琴坐野堂.”(<送別金僉使伯玉赴北>, 『석(상)』, 12a)

130) <俠客行二首>의 제2수, 『석(상)』, 2b.

131) <八月望, 有感詠月>, 『석(하)』, 15a.

는 내용의 시가 많으며, 성로의 시에서처럼 인가에 침입해 고위 관료의 첩을 희롱한다는 내용은 생소하다. <운영전>의 김진사는 애초 안평대군이 초치해 ‘비해당’으로 갔지만 뒤에는 몰래 답을 넘어들어가 운영과 사랑을 나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이 시에서 읊었듯 “인가에 침입”한 것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김진사는 이 시의 인물처럼 남의 첩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운영과 서로 마음이 통해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시 속의 여성과 소설 속의 여성은 첩이거나 시첩(侍妾)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게다가 상서와 대군은 고귀한 신분이며, 우림랑과 김진사는 별 존재도 없는 낮은 지위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서로 짝이 된다. 이리 보면 <협객행>에 투사된 성로의 로망과 <운영전>에 투사된 작자의 로망 간에는 상당한 접점이 있다고 할 만하다.

(나는) 추석날 달을 읊은 것이다. ‘우객(羽客)’은 선인(仙人)을 가리킨다. 달나라의 향아가 호출되었기에 ‘두꺼비’와 ‘옥토끼’가 함께 언급되었다. ‘신녀(神女)’는 무산(巫山)의 신녀를 가리킨다. 초나라 양왕과 무산신녀가 양대에서 운우지락을 나눴다는 고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안다.

추석의 달을 읊은 옛 시인의 시는 해아릴 수 없이 많지만 성로의 이 시는 그 상상력이 실로 특이하다. 초양왕과 무산신녀의 운우지락은 종종 일탈적 사랑의 메타포로 인거(引據)되곤 한다. 성로는 우객과 향아를 이들에 비기고 있다.

이 두 시를 통해 성로의 의식 심연에 관습과 규범을 벗어난 일탈적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운영전>은 성로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던 일탈적 사랑에 대한 로망의 소설적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이다.

7. 주인을 저버린 노복(奴僕)

<운영전>에는 ‘특’이라는 노복이 등장한다. 특은 당 전기소설 <곤륜노> (崑崙奴)에 등장하는 노복 곤륜노의 ‘전도(顛倒)’이다.¹³²⁾ 곤륜노는 주인을 도와 주인의 사랑을 성취시켜 주는 의리 남아이지만 특은 주인을 돕는 척하며

132) ‘특’이 당 전기소설 <崑崙奴>의 등장인물 ‘곤륜노’를 뒤집어 패러디한 것임은 일찍이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385면에서 밝힌 바 있다.

주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간특한 인물이다. 운영전은 후반부에 부각된 이 특이라는 인물로 인해 여느 전기소설과 다른 파란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특은 주목되는 인물이다.

특이라는 인물은 임진왜란 뒤 야기된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의 동요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해되기 어렵다. 그는 이런 사회 변화의 반영으로서 작품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로가 서호에 살 때 집의 두 노복이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이다. 성로는 이 낭패감을 다음 시에서 읊고 있다.

생각하고 생각하네 두 종이 어디로 갔는지
 마굿간의 굶주린 말은 사람을 보고 우네.
 깊은 밤 술 취해 집에 올 때 누가 길을 인도할꼬
 호상(湖上)의 봄밭에 풀 또한 더북한데.
 念念雙童何處去，廐中飢馬向人嘶。
 醞歸深夜誰扶路，湖上春田草亦齊。¹³³⁾

운영전의 작자는 특을 악독하기 그지없는 인물로 그려 놓았다. 그리하여 특은 결국 함정에 빠져 생을 마감한다. 위 시에서 “생각하고 생각하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성로는 도망간 두 종을 몹시 원망했을 터이다. 노비가 없으면 집안 생계가 어려워지니 원망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성로는 펍 고단한 형편이었다. 이리 본다면 <운영전>에 특이 왜 그리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지가 조금 이해된다. 특에는 노복과 관련한 성로의 실제 체험이 얼마간 투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유의해야 할 점은 안평대군에 대한 긍정적 서술과 대조되는 특에 대한 부정적 서술에서 작자의 계급적 관점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³⁴⁾

133) <失童奴作>, 『석(상)』, 22a.

134) 선행연구 중에는 안평대군을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기 위해 ‘특’이라는 악역의 설정이 필요했다고 본 견해가 있다(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721면). 사실 <운영전>은 특이 나오는 부분을 떼어 버리고 운영이 자결한 후 김진사도 곧 따라 죽는 것으로 처리해도 전기소설의 작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그쪽이 주제의식을 좀 더 선명히 하면서 깔끔한 결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소설의 完整美를 고려한 형식 위주의 판단이거나 전기소설의 표준적 장르

이것으로 고증을 끝내기로 한다. <운영전>은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만큼 그 작자가 누구기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다 보니 고증이 좀 길어졌다.

‘성로가 작자다’라는 가설 하에 지금까지 제시한 일곱 가지 논거를 대하면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 어느 하나 어긋나지 않으며, 일곱 개 모두가 가설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로가 작자가 아니다’라는 가설 하에 지금까지 제시한 일곱 가지 논거를 대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온다. 어느 하나도 부합하지 않음으로써다.

본고에 제시된 일곱 가지 논거 가운데 일부를 충족시키는 문인은 혹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곱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문인은 성로 외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IV. 성로의 <운영전> 창작 동기

<운영전>은 여성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종래의 연구는 대체로 주로 이 점을 주목했다. 그리하여 비록 그 작자를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시대를 앞서간 진보적 사상의 소유자일 것으로 보았다. 이제 <운영전>의 작자가 밝혀진 만큼 작품의 창작 동기에 대해 약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문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아닌가 한다. 만일 <운영전>에서 ‘특’이라는 인물을 소개해 버린다면 비록 형식과 결구의 완성성은 더 높아질지 모르나 전대의 전기소설이 보여준 시대부적 생활 세계와 감각의 틀은 눈곱만큼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되고 만다. 비록 극히 사악한 악인으로 그려져 있기는 하나 특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사대부의 세계와 다른 인민의 세계가 비로소 소설 공간 속으로引入되고 있음으로써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라는 인물 역시 운영과 김진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을 불췌고 있으며, 이는 운영과 김진사의 욕망과 또다른 의미에서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특이라는 인물은, 설사 작자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기소설의 장르 관습에 중대한 변화를 낳고 있으며, 이 점 소설사에서 특이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필자는 특이 전기소설의 닫힌 체계에 숨구멍을 트면서 작품을 훨씬 풍부하게 하고 문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운영전>의 독해에서 여성의 욕망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소설사에 처음 등장하는 ‘특’이라는 이 특이한 인물의 의의, 그리고 그에 대한 작자의 계급적 태도와 시선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첫째, 사랑에 대한 도선적(道仙的) 꿈꾸기.

성로는 꼭 체제에 저항하거나 정치 현실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순응해 적당히 살아가는 삶의 행로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는 방외인으로서 세상을 벗어나 사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그에게 현실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필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경세지(經世志)’가 없지 않았으며,¹³⁵⁾ 이정귀나 이경석이 말한 것처럼 ‘고사(高士)’의 면모 또한 없지 않았다.¹³⁶⁾ 그러므로 늘 술을 마시며 방외에서 노닐었으나 그의 흥중에 세상에 대한 격정과 번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사육신의 1인인 성삼문의 후손으로서 다른 집안의 사대부와 달리 절의에 대한 자의식을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나온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김시습이나 남효온처럼 지조를 대놓고 표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김시습이나 남효온의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로는 지조를 놓을 수도 없고 놓고 싶지도 않은데 그것을 뚜렷이 주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니 술에 취해 살고 결국 술꾼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평생을 방외인적 삶으로 일관한 데서 알 수 있듯 성로는 세상과의 ‘불화감’이 컸던 인물이다. 그가 <운영전>을 창작한 것은 바로 이 불화감에서 기인한다. 또한 <운영전>이 대단히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것도 작자의 불화감과 깊은 내적 관련이 있다.

<운영전>에서 남녀 주인공이 보여주는 배타적 사랑의 깊이는 작자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불화의 정도와 비례한다. 또한 <운영전>에서 사랑의 비극성의 정도 역시 작자의 세상과의 불화와 비례한다. 남녀주인공의 사랑이 애뜻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좌절이 참담하면 할수록, 작자의 세상에 대한 불화감의 크기는 더 잘 정시(呈示)된다.

<운영전>의 비극성은 그 적장구조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에서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과 헤어진 후 바로 죽지는 않는다. <이생규장전>의 주인공 이생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아 내를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몇 달만에 죽었”¹³⁷⁾으며, <만복사저포기>의

135) “湖海成夫子，平生百尺臺。可憐經世志，頭白但含杯。”(<獻次成進士見示韻>，『석주집』 별집 권1)

136) “襄陽高士傳，千載繼芳聲。”(이정귀, <石田輓詞> 10수 중 제2수, 『석(하)』, 27b); “若公可謂高士者非耶。”(이경석, <석전유고서>, 『석전유고』)

주인공 양생은 여주인공과 헤어진 후 다시 혼인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다. 이와 달리 <운영전>의 김진사는 운영의 혼령을 위해 절에 불공을 드린 후 다음과 같이 생을 마감한다.

그 후 나는 세상사에 뜻이 없어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조용한 방에 누웠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한 번 장탄식을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¹³⁸⁾

김진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는 한국고전소설사에서 미증유의 사태다. <운영전>은 특이하게도 남녀주인공이 모두 자결로 생을 마감한다. 성로는 두 사람의 죽음을 이리 처리함으로써 두 사람의 존재관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실존에 대한 감각 내지는 세계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운영전>에서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즉각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설에서 처음 나타나는 본격적인 적각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녀 주인공은 둘 다 이 세상에 유배온 선인(仙人)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은 후 다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 죽음으로써 바로 같이 천상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운영전>에 그려진 김진사의 죽음에는, 죽음에 대한 작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성로는 이 세상에 아무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¹³⁹⁾ 이 작품에는 이런 초연하고 고답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죽음에 대한 관념이 투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운영전>은 김시습이 『금오신화』에서 강한 울림으로 제기한 ‘절의’의 미학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다.¹⁴⁰⁾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는 외부의 불의 혹은 폭력과 견결하게 맞서는 여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절의를 아주 선명히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전>에는 김시습의 작품들에 설

137) 박희병·정길수 편역, 『끝나지 않은 사랑』(돌베개, 2010), 153면.

138) 『사랑의 죽음』, 106면.

139) 다음의 시구에 성로의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난다: “西湖勝景人不識, 無事無求我是仙.”(<走次安景容韻>, 『석(상)』, 11a~11b) 이런 生의 태도 내지 감각 역시 성로의 도가적 세계관에 서 기인한다.

140) 『금오신화』의 이런 면모는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돌베개, 1997)에 수록된 『『금오신화』의 소설미학』을 참조할 것.

정된 것과 같은 그런 외부의 적(敵)이 대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운영은 궁궐의 규율을 어겨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그렇다고 안평대군이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저포기>에 등장하는 흥건적이나 왜구와 같은 적대자는 아니다. 오히려 작자는 애써 안평대군을 어질고 인간미 있는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요컨대 안평대군은 악인이 아니다.¹⁴¹⁾ 게다가 안평대군은 운영의 용서할 수 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일 김시습의 작품을 기준으로 운영의 죽음을 본다면 비록 그 비극성은 크다 할지라도 절의의 선명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립의 모호성’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바로 이 대립의 모호성 때문에 운영의 죽음은 사회적·제도적 모순을 더욱 잘 드러내게 된다. 주군은 죽지 않게 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운영은 죽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 주어진 사회 제도 내에서 주군은 비록 어질고 훌륭한 인물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제도의 모순과 억압 때문에 운영은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녀의 죽음에 담지된 메시지가 됨으로써다. 김시습의 작품과 달리 <운영전>에서는 여주인공보다 남주인공에게서 절의가 좀 더 뚜렷이 구현되고 있다. 김진사는 어떤 의미에서 성로의 분신에 해당한다.¹⁴²⁾

성로가 꿈꾼 도선적 사랑은 일탈성이 아주 높다. <이생규장전>에 그려진 사랑에도 일탈성이 없지 않지만 그 정도가 <운영전>처럼 그리 현저하지는 않다. <이생규장전>에서 남주인공은 정분이 나 몰래 사랑을 나누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된다. 이와 달리 <운영전>에서 남주인공의 사랑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왜냐하면 안평대군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궁녀가 한번이라도 궁문을 나서면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 또한 사형에 해당한다.¹⁴³⁾

141) 이 점은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에서 잘 해명되었다.

142) 가령 <운영전>의 서두에 제시된 김진사의 다음과 같은 말, 즉 “僕以年少俠氣, 志慮浩蕩, 不能自抑”(『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권, 336면)에는 작자 성로의 모습이 다소간 투사되어 있다고 보인다.

143) 『사랑의 죽음』, 38면.

<운영전>에 그려진 일탈적 사랑은 사랑에 대한 작자의 로망과 관련이 없지 않다. 그리고 작자의 이같은 로망은 통념이나 통속을 따르지 않고 고답적이고 방달한 태도로 자신이 속한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며 자유를 꿈꾼 작자의 기질과 파토스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둘째, 성삼문과 안평대군의 기억화.

<운영전>은 ‘우의(寓意)’를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수성궁과 ‘비해당’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작자는 이 공간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이전의 성세(盛世)를 소환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비해당’에 당대의 재능 있는 온갖 문사들이 드나들며 시를 수창하는 장면이 거듭 묘사되어 있다. 성삼문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작자가 안평대군을 얼마나 긍정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안평대군의 시절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운영의 다음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

세종대왕의 여덟 대군 중에 안평대군이 가장 총명하여 임금께서 매우 아끼며 무수히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며 노비며 재산이 여러 왕자들 중에서도 단연 많았지요. 안평대군이 열세 살에 사궁(私宮)으로 나가 사니 그곳이 곧 수성궁이었습니다. 대군은 선비의 학업을 자임하여, 밤에는 독서하고 낮에는 시를 짓거나 서예를 하며 잠시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당대의 문인들이며 재주 많은 선비들이 모두 대군의 문하에 모여 서로 기량을 겨루면서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열심히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요. 대군은 또 서예에 특출하여 나라 안에 명성이 높았습니다. … 문장으로는 성삼문이 으뜸이요 서예로는 최홍효가 으뜸이었습디만 모두 안평대군의 재주에는 미치지 못했지요.¹⁴⁴⁾

기실 <운영전>에는 ‘안평성시지사(安平盛時之事)’에 대한 회고의 정과 그것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다음에서 보듯 작품 서두와 말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가) 안평대군 시절의 성대했던 일들과 진사가 마음을 상한 까닭을 소상히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¹⁴⁵⁾

144) 위의 책, 35~36면.

145) 위의 책, 34면.

(나)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대군이 패한 후 궁궐에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게다가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화려한 집은 쪼터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내려 오직 섬돌의 꽃과 뜨락의 풀만 우겨져 있습니다. (...) 이곳에 와서 지난날을 추억하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¹⁴⁶⁾

(가)는 몽유자(夢遊者) 유영의 말이다. ‘안평성시지사’를 들려주기를 청하고 있다. (나)는 작품 말미에서 김진사가 한 말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진사가 이 날 밤 자신과 운영이 슬퍼하는 것은 자신들의 옛일 때문이 아니라 안평대군이 패해 이곳이 적막해지고 게다가 임란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평대군이 패했다’는 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안평대군을 유배 보내 사약을 내려 죽게 한 일을 가리킨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의 자식을 죽이고 집안 여자들을 모두 노비로 만들어 버렸다.

앞에서 살핀 바 있지만 <운영전>에는 성삼문이 등장한다. 성삼문은 단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육신 및 병자사화(丙子土禍) 때 처형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호출되었다 할 만하다. 안평대군은 작품의 앞에서부터 뒤까지 쪽 등장하고 성삼문은 앞부분에 잠시 등장하고 말지만 그 서사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안평대군 서사보다 성삼문 서사 쪽에 훨씬 더 큰 우의(寓意)가 주어져 있을지 모른다. 만일 두 서사를 하나로 묶어 이해한다면 성삼문 서사는 비유컨대 화룡점정(畫龍點睛)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 성삼문의 등장은 의미심장하다.

이리 본다면 이 작품은 그 정신사적·역사철학적 지향에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남효온의 <육신전>(六臣傳), 임제의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¹⁴⁷⁾ 작자는 세조의 왕위 찬탈의 부당성

146) 위의 책, 107면.

147) 필자는 일찍이 임제의 <원생몽유록>이 <육신전>의 ‘속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한길사, 1992), 134면을 참조할 것.

을 암묵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그 희생자들인 성삼문과 안평대군을 추모하며 그들을 기억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품 말미에서,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뒤 망연자실하여 명산을 두루 유람하다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을, 유영이 성세로 생각했던 ‘안평대군의 시대에도 인간의 진정한 삶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서였기 때문’¹⁴⁸⁾으로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작자, 유영, 운영, 김진사는 일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작자는 유영의 이런 반응을 통해 대체 무얼 말하고자 했을까? 안평대군, 그리고 성삼문으로 대표되는 제제다사(濟濟多士)가 이룩해 낸 성세가 사라져 버린 데 대한, 그리고 참혹한 전쟁으로 소중했던 기억의 공간이었던 수성궁이 마침내 폐허가 되어 버린 데 대한 절망감과 비감(悲感)과 무상감을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닐까.¹⁴⁹⁾ 그렇다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에 대한 비극적 서사는 뭔가? 그것은 물론 그 자체로 심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를 안평대군의 시절로 이끄는 ‘채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줄 안다. 말하자면 우리는 비극을 통해서만-이는 작자의 생애에 대한 정조(情調), 작자의 역사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다-안평대군과 성삼문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운영전』에는 두 개의 비극이 존재하는바, 하나의 비극을 통해 또다른 비극이 그려지며 반추되고 있는 셈이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는 작자의 창작 의도나 창작 동기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독자는 작품에서 작자의 창작 의도를 뛰어넘

148)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163면.

149) 그러므로 작품 말미에서 김진사가 유영의 손을 잡고 한 다음의 말, 즉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천지가 다해도 이 한은 없애기 어려울 것입니다”(『사랑의 죽음』, 108면)라는 말은 종전의 해석처럼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삶을 가리킨다고 하기 어렵다. 이 말은 수성궁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깊은 정한(情恨)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진사가 이 말 끝에 “바라건대 선생은 저희가 쓴 글을 수습하시어 영원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데에는 성대했던 수성궁의 시대를 잊히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적어도 작자의 의도는 그렇다고 생각된다. 이리 해석해야 그 바로 뒤에 김진사가 읊은 시의 “궁중에 꽃 지고 제비 나는데 / 봄빛은 예와 같되 주인은 간 데 없네”(花落宮中燕雀飛, 春光依舊主人非)라는 구절과 운영이 읊은 시의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띠었고 / 천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故宮花柳帶新春, 千載豪華入夢頻)라는 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는, 혹은 작자의 창작 의도와 배치되는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렇기는 하나 적어도 작자의 창작 동기에 즉해서 『운영전』을 읽는다면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억압된 여성의 처지에 대한 공감.

작자는 운영과 자란을 통해 여성에게도 욕망이 있으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아주 놀랍고 파격적인 주장이다. 남녀의 정욕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은 중국의 경우 양명학 좌파에 의해 제기되어 명말(明末) 문학에서 하나의 풍조를 이룬다. 서위(徐渭), 탕현조(湯顯祖), 원굉도(袁宏道), 풍몽룡(馮夢龍) 같은 문인이 대표적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중국 군관(軍官) 중에는 강남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바 이들을 통해 조선에 양명학이 수입되기도 했으나 성로가 꼭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¹⁵⁰⁾ 적어도 『석전유고』에서는 양명학의 흔적이 전연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로가 보여주는 여성의 욕망에 대한 진보적 관점은 그의 내부에서 양성(釀成)된 것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 이런 견지에서 성로의 도가적 경도가 다시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가 지녔던 도가적 사상 내지 세계관이 여성의 욕망에 대한 적극적 긍정을 낳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가 사상은 과욕(寡慾)을 중시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자연스런 성정(性情)을 긍정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운영전>이 보여주는 여성의 정욕에 대한 긍정은 도가 사상에 유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본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사상에 경도하게 된 성로의 기질이나 가치 지향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 틀림 없다. 또한 성로는 설죽과의 존재관련이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여성에 대한 이해, 특히 외로운 처지에 있는 미천한 출신의 재능 있는 여성에 대한 공감의 심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갔다고 생각된다.¹⁵¹⁾

150)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에서는 <운영전>의 사상적 기반이 양명학이라고 했다.

151) 기존연구에서는 <운영전>이 보여주는 여성의 욕망에 대한 적극적 긍정이라든가 안평대군에 대한 긍정적 시각,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작자가 중세적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고자 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이상구, 앞의 논문, 164면). 하지만 과연 성로에게 그런 의도나 생각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창작 동기에 즉해서 본다면 성로는 단지 금압된(왕실 권력에 의해 통제된) 여성의 욕망에 대한 긍정을 서사적으로 최대한 밀고 나가고자 했을 따름으로 생각된다. 즉 성로는 중세적 이념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중세 체제에 대한 부정을 의식하면서, 이를 위해 소설을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로가 꼭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독자는 실현된 서사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어

V. <운영전>의 창작 시기

종래 <운영전>의 창작 시기는 대체로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어 왔다. <운영전>의 작자가 성로로 밝혀짐에 따라 이제 창작 시기가 좀 더 좁혀질 수 있게 되었다. 성로의 몰년이 광해군 7년인 1615년이니 <운영전>은 적어도 1615년 이전에 창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운영전>에서는 유영이 수성궁의 폐허에서 김진사와 운영을 만난 일시를 “만력신축춘삼월기망”(萬曆辛丑春三月既望)이라 명기해 놓았다. ‘만력신축’이면 선조 34년인 1601년이다. 혹 이 연조가 <운영전>이 창작된 시기는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앞서 밝힌 대로 성로가 서호에 새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은 1602년 가을 이후로부터 1603년 사이이다. 그리고 설죽이 서호로 온 것은 1606년경이다. 앞서 밝혔듯 <운영전>의 운영에는 설죽이 투사된 부분이 없지 않다. 가령 운영이 남쪽 사람이며 궁중에 들어온 이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이 한 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운영전>은 1606년에서 1615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그 창작 시기가 좀 더 좁혀진다. 성로의 만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작중에 명기된 ‘만력신축춘삼월기망’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우선 ‘춘삼월기망’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는 독자에게 각별한 흥취와 정회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간 설정’이 아닌가 한다. <수성지>에서 ‘국양장군’(술)이 천군에게 처음 알현한 날을 “삼월 십오일”¹⁵²⁾로 설정한 것이나 <오유란전>(烏有蘭傳)에서 이생이 오유란을 처음 보고 반한 날을 “춘삼월망간”(春三月望間)¹⁵³⁾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척전>에서 최척이 통소를 붙고 옥영이 시를 읊으며 화락하게 지내던 때를 ‘늦봄(3월)의 달 밝은 밤’¹⁵⁴⁾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더구나 꽃다

낼 수는 있다. 이처럼 텍스트에는 작자를 넘어서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면 작자의 창작 의도 내지 창작 동기와 텍스트가 담지하거나 지향하는 의미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복잡한 변증법적 관계와 모순이 존재하므로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사고는 극도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차후의 <운영전> 연구에서는 이 점이 각별히 유의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152) 『한국한문소설 교습구해』, 제2판, 198면.

153) 위의 책, 960면.

154) 위의 책, 429면.

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운영과 김진사를 생각할 때, 그리고 수성공의 성대했던 과거와 폐허가 된 지금을 생각할 때 춘삼월이라는 시간 설정은 절묘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기망’은 달이 가장 밝으니 깊은 밤 운영과 두 남녀 주인공이 정담(鼎談)을 하는 데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김진사가 책자(冊子)에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는 언급¹⁵⁵⁾과도 잘 상응이 되는 설정이다. 그러므로 ‘춘삼월기망’이라는 시점(時點)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 작자의 소설적 선택의 결과이며 작자의 실존적 경험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춘삼월기망’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력신축’이라는 설정에는 혹 작자의 특별한 실존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해 바로 이 해에 성로는 임진왜란 발발 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을 탐방하고 그 부근의 수성공을 찾은 건 아닐까? 그게 맞으려면 성로는 전쟁이 종식된 후 처음 이곳을 찾은 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중의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서울의 궁궐이며 성 가득 화려한 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¹⁵⁶⁾라는 서술에서 보듯 운영은 전란 후 생애 처음 이곳을 찾은 것으로 서술되고 있음으로써 “전쟁을 겪은 지” 운운한 이 서술에 임란 종식 후 도성을 찾은 성로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체험이 과연 꼭 1601년의 것일까 하는 점이다.

앞에서 밝힌 대로 성로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 군산에서 강화도로 피란했으며, 이후 1602년까지 6년을 강화도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1603년 무렵부터 양화도 부근의 서호에 살았으며 이때부터 도성에 발을 끊고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만일 1601년에 성로가 임란 후 처음으로 도성의 옛집을 찾은 게 맞다고 한다면 성로는 강화도를 출발해 서울에 온 게 된다. 강화도에서 서울 오는 것은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혹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하필 1601년에 왔는가이다. 정유재란이 종식된 것은 1598년 12월이다. 이로써 약 7년간의 왜란이 완전히 끝났다. 성로는 이 기간 동안 서울 집을 떠나 피난살이를 해야 했다. 성로는 전쟁 종식의 소식을 적어도 1599년 봄에는 접할 수 있었을 터이다. 무릇 전쟁이 종식되면 피난민들은 전쟁 전 자신이

155) “四顧無人，只有金生所記冊子而已.”(위의 책, 383면)

156) “新經兵燹之餘，長安宮闕，滿城華屋，蕩然無有.”(위의 책, 334면)

살던 집을 곧바로 찾게 마련이다. 인왕산 아래의 수성궁 부근에 오랫동안 살았던 성로 역시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게다가 강화도는 서울 인근이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도성에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로가 전쟁 종식 후 1601년에 처음 도성을 찾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로는 전쟁 종식 직후인 1599년 도성의 옛집을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 인정상 자연스럽다. 하지만 “서울의 궁궐이며 성 가득 화려한 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운영전>의 서술처럼 성로의 집도 그 사이 폐허로 변했을는지 모른다. 성로가 전쟁 종식 후 서울 집으로 돌아와 살지 않고 강화도에서 4년을 더 살다가 서호에 집터를 물색해 그리로 주거를 옮긴 것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리 본다면 ‘만력신축’은 꼭 작자의 실존적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허구적 설정일 가능성이 높다. 소설 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성을 그리는 데는 전쟁이 종식된 다음해인 1599년보다는 그 한두 해 후를 시점으로 잡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더구나 유영은 봄날 도성 구경을 나선 길이였으므로.

VI. 맺음말

본고의 고증을 통해 <운영전>의 작자가 성로임이 밝혀졌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 전기 사이의 소설가로는 권필, 허균, 조위한, 황중윤(黃中允), 권척(權弼)이 알려져 있다. 이제 여기에 성로의 이름을 보탬 수 있게 되었다. 성로는 우리 문학사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문제적 인물이다.

성로는 평소 한국과 중국의 소설을 많이 섭렵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영이 거처하는 방의 서안(書案) 위에 『태평광기』(太平廣記) 한 권이 펼쳐져 있었는데 <운영전>의 서술은 허투루 볼 대목이 아니다. 매개적 인물들인 무녀(巫女)나 특을 형상화한 필치는 소설 작법에 익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성로는 권필과 절친했다. 그는 권필이 <주생전>을 창작한 데 자극받아 <운영전>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는 하나 성로가 소설 창작을 통해 보여준 문제의식이나 가치태도는 권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며 오히려 선조

(鮮初) 김시습의 소설미학과 연결되고 있다. 성로는 김시습이 그 소설미학의 중핵으로 삼은 ‘절의’의 문제를 계승하는 한편 억압된 삶을 사는 궁녀라는 한 특수한 하위주체의 성적 욕망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구를 소설사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성로의 이 대담하고 소중한 문제의식은 소설사적으로 본다면 『춘향전』으로 계승되어 더욱 진전된 치열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즉 『춘향전』은 전망 부재의 현실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운영전>과 달리 하위주체인 기생 춘향의 인간해방의 요구와 그 민중적 의미 관련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춘향전』이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성취의 출발점에 <운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운영전>의 이런 문제의식이 17세기 벽두에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그 작자를 고증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얼마간 논급해 두었다. 하지만 본고는 작자 고증에 주안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포함해 작자와 작품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장차 학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종래 <운영전>에 대한 독해는 불가피하게도 작자를 괄호 속에 넣은 채 이루어졌다. 이제 작자가 밝혀진 만큼 앞으로의 <운영전> 연구는 바야흐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리라 전망한다. 아무쪼록 본고가 새로운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운영전>의 빼어난 필치로 볼 때 성로는 이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다른 소설을 써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습작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위생전(韋生傳)>(일명 ‘韋敬天傳’)이 그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稿)를 달리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권필, 『石洲集』.
김주, 『雲巖先生集』.
성로, 『石田遺稿』.
설죽, 『雪竹詩稿』.
유몽인, 『於于集』.
이식, 『澤堂集』.
이정귀, 『月沙集』.
이춘영, 『體素集』.
허목, 『記言』 別集.

왕십봉, 『東坡詩集注』.
원진, 『元氏長慶集』.

『선조실록』

『昌山世德錄』, 창녕성씨문숙공파세보편찬위원회, 1982.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제2판, 소명출판, 2007.

박희병·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_____,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정공보, 박희병·정길수 교감·역주, 『포의교집, 초옥 이야기』, 돌베개, 2019.

2. 단행본

박혜숙, 『한국한시의 장르적 시각』, 소명출판, 2019.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_____,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3. 논문

강전섭, 「<관동별곡>의 원전 모색」, 『동방학지』 제4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49~95면.

김상엽, 「조영의 <군산이우도>」, 『미술사연구』 제6호, 미술사연구회, 1992, 123~136면.

김창호, 「성로 시세계의 연구」, 『동방한문학』 제30호, 동방한문학회, 2006, 261~285면.

- 박기석, 『운영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711~724면.
- 박영철, 『<군산이우도>와 군산도』, 『역사문화연구』 제6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7, 89~120면.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3~176면.
- 이원걸, 『조선조 기녀 시인 설죽』, 『한문학보』 제31집, 우리한문학회, 2014, 3~31면.
- 이종묵, 『성로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8권, 한국한시학회, 2003, 5~30면.
-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133~164면.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71~103면.
-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영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261~292면.
- _____, 『한문소설사 서술의 제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제64집, 한국한문학회, 2016, 120~158면.

Historical Research of Author of *Un'yeong-jeon*

Park, Hee-byoung

Although *Un'yeong-jeon* is a highly important work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 novels, its author remains unknown to date. Through in-depth historical research this paper reveals *Un'yeong-jeon* was written by Seong Ro(成輅, 1550-1615). Another work of Seong Ro is *Seokjeonyugo*, which is analyzed in this paper together with *Un'yeong-jeon* and the documents left by other writers of the time. This analysis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Un'yeong-jeon* was written by Seong Ro.

He is a descendant of Seong Sam-mun, one of the “six martyred ministers.” Identifying Seong Ro as the author of *Un'yeong-jeon* finally explains why Seong Sam-mun appears in the work, as well as the reason why Grand Prince Anpyeong is depicted so positively.

keywords: *Un'yeong-jeon*, *Seokjeonyugo*, Seong Ro, Grand Prince Anpyeong, Seong Sam-mun, fictional biography

접수일자: 2020. 9. 30. 심사기간: 2020. 10. 1.~2020. 11. 10. 게재결정: 2020. 11. 10.
